



서울대미주동창회보

www.snuaa.org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228호 2013년 4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
1225 W.190th St. #465
Gardena CA.90248 USA
Tel 310-515-7888 Fax 310-515-7883
e-Mail : snuaausa@yahoo.com



"반동문자 김지하입니다!"

김지하 동문 LA '작가의 집' 서 강연

‘간대합덕’에 의한 한미 역사문화적 관계 해설
자신에 대한 정치사회적 비평에 대해 반박설명

유신시대의 대표적 저항시인으로 잘 알려진 김지하(金池河, 본명 김지하) 동문은 지난 4월 14일 남가주에서 특별 강연했다.

김지하 동문은 지난 4월 13일 스탠포드 대학 이태원연구소 초청으로 특별 강연회를 연 뒤 바로 LA에 와서 우리 동문들을 위해 이 같은 강연회를 가진 것이다.

이 행사는 우리 한국 문단의 거장 이태원 동문이 지난 3월 미주 강연을 연 뒤 이어졌다. 김병연(金炳淵) 동문과 부인 김

문희 시인이 대표인 남가주 '작가의 집'에서 4월 14일 '김지하 시인 LA초청 문학 강연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150여 명의 동문과 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 강연회에서 남가주 동창회 김상진(金相鎭 68)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김지하 선생은 80년대 독재정권의 한계에 위촉돼가는 서양사상을 보고 동양철학과 한국의 전통사상을 아우르는 '생명사상'을 제창, 합성된 선생의 뒤를 이

어 '생명사상'을 이루어 가신 분으로 이 자리에 모신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연에 나선 김지하 동문은 대담 및 마디부터 "반동문자 김지하입니다"라고 일갈해 라우팅 크게 놀라게 했다. 이어 김지하 동문은 "미국과 한국 등 동서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대선 전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때 따듯한 자신에 대한 대대적 회개와 비판에 대해 조목

조목 예를 들어가며 때로는 죄나라 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반격을 가하며 자근 자근 설명해나갔다.

김 동문은 이날 "미국의 Martha's Vineyard에서 여섯을 구해 경제개발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미국의 참관단 비판에 의해 물러났다고 있다"며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김 동문은 특히 한국의 조선 말기인 1880년대 충성주의와 억압적 가부장제 '정약(正統)'에 나오는 '간대합덕'(乾綱獨攬)'에 의한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역설해 크게 주목을 끌었다.

이에 따르면 '간(乾)'은 '산(山)'을 뜻하는 것으로 한국을 나타내고 있고 '정(正)'은 '연(連)', 즉 '물'을 뜻하는 것으로

미국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과 물은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한국과 미국은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같은 운명체라는 사실이 1880년 그 까마득한 시절부터 내려온 사실"이라고 했다.

김 동문은 이같은 한미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간 자신을 둘러싼 정치 사회적 비평에도 날카롭게 대응해나갔다. 특히 일부 계층에서 자신에 대해 "반동문자"라고 일컫는데 대해서는 "나를 반동문자라고 하는 자들이 진짜 반동문자"라고 거침없이 규정지었다.

김지하 동문의 본명은 김영일(金英一)이다. 1941년 전남 목포 출생으로 1970년대 제3공화국 유신 시대 전 육군복 지른 대표적 문인이다. 1980년부터는 동시사와 철학과 한국의 전통 사상을 아우르는 '생명사상'을 제창했다. 대표적인 시집으로 '태초의 마흔으로' '오래' '친 그늘의 길'과 '김지하 사상집전'을 비롯한 35권의 저서가 있다. 또한 이상 문학상을 비롯 수많은 상을 수상했다.***

<강연회 전후 60분 질의-응답>

이달의 초대
이기훈 전 회장***14면

이달의 초대
김동근 CEO***15면

NON-PROFIT
US POSTAGE PAID
GARDENA, CA
PERMIT No. 177

영국 Times 평가 모교 서울대 세계 대학 평판도 순위 41위 랭크

순위	대학명	나라
1	하버드	미국
2	MIT	미국
3	케임브리지	영국
4	옥스퍼드	영국
5	UC버클리	미국
6	스탠포드	미국
7	프린스턴	미국
8	UCLA	미국
9	동경대	일본
10	에일	미국
41	서울대	한국

모교 서울대가 '전 세계 대학교 평판도' 순위에서 세계 41위에 올랐다. <로열 프리> 이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영국 'Times'의 교육 전문잡지인 'Times Higher Education'에 따른 것이다. 'Times Higher Education'은 '전 세계 대학교 명성(Reputation) Top 100'을 조사해서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이 총점 100점을 받아 1위에 올라 있다. 2위는 87.6점을 얻은 MIT가 차지하고 있다. 지난 해에도 이 두 학교가 나란히 1, 2위를 기록

한 바 있다. 미국내에서는 UC버클리가 5위, 스탠포드 6위, UCLA가 8위를 차지해 가주 내 3개 대학이 'Top 10'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밖에 컬텍은 11위를 기록했다. 미시간대-애크리프 Top 15위 기록했다. 미시간 대학은 12위를 기록해, 중상부 지역 대학 최고 랭킹을 차지했다. 미시간대-애크리프는 교수 19.3점, 리서치 23.9점으로 평균 22.4점을 기록했다. 중상부 대학은 미시간대-애크리프 시카고대가 15위를 기록했고, 일리노이대-아바나상페인이 24위를 올렸다. UC샌디에고 34위, UC 샌프란시스코 40위, UC 데이비스가 48위를 올렸다. 50-100위권에는 UC 샌타바버라 USC 등 주 대학들

이 포함되었다. 50위권 내의 중상부 학교로는 워싱턴대-매디슨(30위), 노스웨스턴대(37위), 퍼듀대(50위) 등이 있었으며, 미네소타대, 오하이오대, 미시간주립대 등은 100위권에 들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동경대가 9위를 차지하고 Top 10에 포함됐다. 모교 서울대는 지난해 50위권 밖에서 치렀으나, 올해 41위로 상승했다. 전 세계 대학평판도 Top 10 순위는 ▶1위 하버드 ▶2위 MIT ▶3위 컬텍 ▶4위 옥스퍼드 ▶5위 UC버클리 ▶6위 스탠포드 ▶7위 프린스턴 ▶8위 UCLA ▶9위 동경대 ▶10위 에일, 아시아권에서는 ▶22위 싱가포르 ▶35위 중국 칭화대 ▶36위 홍콩대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주 동창회보'는 동문들의 동창회비(구독료 포함 1년 75달러)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기가 7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NAA. 1225 W. 190th St. #465. Gardena, CA.90248

조용민 교수

“현상금 100만달러 수학문제 풀었다”

현상금이 100만 달러가 걸려 있는 ‘조밀하게 7개 수(Heptamillion Problem)’ 가운데 하나를 풀었다는 조용민 교수(물리학) 연구진이 미국 캘리포니아 수학연구소가 제시한 7개 수학문제 중 하나인 ‘양-밀스 이론과 질량간극 가설(Yang-Mills and Mass Gap)’ 문제를 풀었다고 밝혔다.

이제는 지난 4월 17일 조용민 석좌교수(물리학) 연구진이 미국 캘리포니아 수학연구소가 제시한 7개 수학문제 중 하나인 ‘양-밀스 이론과 질량간극 가설(Yang-Mills and Mass Gap)’ 문제를 풀었다고 밝혔다.

조용민 교수는 입자물리학 이론과 우주론 및 통일장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 물리학자다.

‘7개 수학문제’는 미국 클레이 수학연구소(Clay Mathematics Institute, CMI)가 제시한 것이다. CMI는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사설 비영리 재단으로, 수학을 널리 알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1998년 설립된 곳이다. CMI는 탈완전 계층을 바탕으로 수학 분야 여러 개의 관련 상을 제정해 유명한 수학자와 과학자에게 수여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지난 2000년 5월 24일, 수학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인 ‘그 대가제 해결’을 알린 일곱개의 문제들을 모은 뒤, 각 문제를 처음으로 해결하는 사람



이제 100만 달러를 주겠다는 공보문이 내졌다.

이 때 ‘7개 수학문제’라는 개념이 제시됐다.

7가지 문제는 각각 P-NP 문제, 호지 추측, 푸앵카레 추측, 리만 가설, 양-밀스 질량 간극 가설, 네비어-스톡스 방정식, 비탈리 수위논-다이어 추측 등으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엔 어려울 내용들 다뤄고 있다.

지금까지 ‘7개 수학문제’ 중에서는 ‘푸앵카레 추측’만이 증명된 상태다. 지난 2002년 당시까지 외부 학

들은 활발히 하지 않았던 러시아 수학자 그레고리 페렐만도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6개 난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조용민 교수가 국내에서 이 가운데 하나를 해결한 것이다.

다만 이번 조 교수의 문제 해결은 권위를 인정받는 국제 물리학 학회에서는 개최됐지만, 아직 CMI의 검증은 거치지 않은 상태다. CMI는 길게는 2년가까이 시간을 걸어야 해결 과정이 맞는지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가 해결한 ‘양-밀스 이론과 질량간극 가설’은 7대 난제 중 유일하게 물리학 분야 문제다. 전문 용어로 ‘양자 색역학에서 자기홀극 응집이 일어난 것을 증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주의 질량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밝히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주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물리학회가 발간하는 ‘물리 리뷰 B’ 최신호에 게재됐다. CMI는 일로 약 2년간 조 교수의 연구결과에 대해 정밀 검증을 진행한 뒤 오류가 발견되지 않으면 100만 달러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조 교수의 연구는 20년간 공식적 검증은 거친 뒤 페렐만이 못지않은 업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

모교 IPUS 학술대회

창립 7주년 기념

모교 통일평화연구원원이 지난 4월 24일 ‘IPUS 창립 7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주제는 ‘과연 북한 핵을 포괄한 평화는 핵위협이다. 지속가능한 평화의 모색’이다.

모교 박광규 통일평화연구원장 주최로 류길재 통일부장관과 오연진 모교 총장이 축사를 해주었다.

제1회의는 모교 장단종 교수 사회로 ‘지구적 핵확산과 분쟁양상의 변화’에서 한형필 국방연구원장이 ‘북한의 핵개발과 동북아 지역 안보’, 서정민 한국외대 교수가 ‘이란의 핵개발과 중동 지역 안보’,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가 ‘북대량과 분쟁양상의 변화’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제2회의에서는 모교 박희국 교수 사회에서 사비로 “동북아 각국의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서정민(Cai Jianrong) “중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레지 미야자키 “나카토 사치오” 교수가 ‘일본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홍원익 “한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



한호영 차관, 권영세 의원

주미 대사·주중대사로 내정 임명

한호영(사진 왼쪽)·권영세 의원은 지난 3월 각각 주미대사와 주중대사로 내정, 임명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주미대사에 한호영(57) 친 외교부 제1차관을 내정, 임명했다. 이와 함께 권영세(54·민회 의원) 전 새누리당 의원을 주중대사로 임명하는 등 주로 5개국 대사 선임을 마치고 마다 알려진 것이다.

두 동문은 해당 국가의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 절차가 완료돼 정식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호영 대사는 서울 출신이며 정치, 서울대 외교학과를 거쳐 의

무고시 1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동안 외교장관부 차관부장관, 통상교섭조정관, 주필라에 유엔합참사 등을 거쳐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다. 지난 1983년 조지타운대에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미국으로 건너간 인연을 맺었다.

김숙(61) 주유엔대표부 대사는 유임됐다. 김숙 대사는 제물포,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왔다. 외신 22회로 북미학과 6회학단 수석 대표로,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국정원 1차관을 지낸 외교관 출신 인사다. ***

첫 수능 만점받았던 하버드대 오승은 박사
“때 성장 과정의 비밀” 밝혀내



‘첫 수능만점’ 14년 후 하버드대 의대에서는 논문 발표, ‘이치’에 제1저자로 게재

지난 1999학년도 대학 수능시험에서 사상 첫 만점을 받았던 오승은(33·하버드 대학 의대·내과) 박사가 지난 3월 과학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네이처(Nature)’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오승은 박사는 같은 하버드대학 캠퍼스 후부 박사와 함께 동물 성장판의 세포가 어떻게 뼈의 길이를 결정짓는지를 밝히는 데 성공했다. 이 연구는 인공 세포와 뼈 길이 사이의 관계를 밝혀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장판이 ‘긴 뼈(장골)’의 길이를 오목뼈 내 연결되는 세포의 분열과 성장이 뼈 길이와 사람의 신장을 결정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연구로 성장판은 과정과 뼈의 길이를 결정짓는 원리는 못지않은 비밀로 남아 있다.

연구팀은 위성단층촬영을 이용해 성장판 내 연결세포가 물을 흡수하면서 부피가 급격히 팽창하는 특이한 성장과정을 통해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했

다. 보통의 동물세포는 삼투압을 유지하며 세포가 팽창하려 하면 세포질의 단백질 함량과 물의 양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뼈의 성장은 일종의 삼투압과 무관한데, 삼투압이 24시간 안에 수십배까지 부피가 늘어난다. 연구 결과 단백질은 처음에는 어느 세포와 다른 일이 단백질 함량을 통해 성장하지만, 2배까지 성장한 뒤에는 물을 흡수해 세포질은 절반 수준으로 희석되고 부피는 8배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단백질은 팽창을 유도하는 물질이 아니라 수심 배치를 커졌다.

아울러 연구팀은 생쥐와 ‘작은 이집트 조고이(Lesser Egyptian jergoa)’의 비교 연구사를 통해 세포성장 마지막 단계가 뼈의 길이 결정짓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발견, 이리하며 “이 발견은 향후 성장판 관련 생리학·의학 연구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교 서울대 물리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한 오 박사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 전학해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하버드대 의대 박사 후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생물학 연구에도 매진했다.

오 박사는 수능 만점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수능 비법을 담은 학습서 ‘오승은의 수능노드’를 펴냈다. 당시 그는 “수능을 유학 자금으로 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차	내
3. <이학특성> LA 4.2분 특종 주주-한국인 이인자와 차형필/문/문신자-김현에 점	5. <이학특성> LA 4.2분 특종 주주-한국인 이인자와 차형필/문/문신자-김현에 점
4. <이학특성> LA 4.2분 특종 주주-신상심은 동문 14명/김지영 동문의 비타인 열/최지영인 신상의 패러독스	5. <이학특성> LA 4.2분 특종 주주-신상심은 동문 14명/김지영 동문의 비타인 열/최지영인 신상의 패러독스
	6. <이학특성> LA 4.2분 특종 주주-신상심은 동문 14명/김지영 동문의 비타인 열/최지영인 신상의 패러독스
	7. <이학특성> LA 4.2분 특종 주주-신상심은 동문 14명/김지영 동문의 비타인 열/최지영인 신상의 패러독스
	8. <이학특성> LA 4.2분 특종 주주-신상심은 동문 14명/김지영 동문의 비타인 열/최지영인 신상의 패러독스
	9. <이학특성> LA 4.2분 특종 주주-신상심은 동문 14명/김지영 동문의 비타인 열/최지영인 신상의 패러독스
	10. <이학특성> LA 4.2분 특종 주주-신상심은 동문 14명/김지영 동문의 비타인 열/최지영인 신상의 패러독스
	11. <이학특성> LA 4.2분 특종 주주-신상심은 동문 14명/김지영 동문의 비타인 열/최지영인 신상의 패러독스
	12. <이학특성> LA 4.2분 특종 주주-신상심은 동문 14명/김지영 동문의 비타인 열/최지영인 신상의 패러독스
	13. <이학특성> LA 4.2분 특종 주주-신상심은 동문 14명/김지영 동문의 비타인 열/최지영인 신상의 패러독스
	14. <이학특성> LA 4.2분 특종 주주-신상심은 동문 14명/김지영 동문의 비타인 열/최지영인 신상의 패러독스
	15. <이학특성> LA 4.2분 특종 주주-신상심은 동문 14명/김지영 동문의 비타인 열/최지영인 신상의 패러독스
	16. <이학특성> LA 4.2분 특종 주주-신상심은 동문 14명/김지영 동문의 비타인 열/최지영인 신상의 패러독스
	17. <이학특성> LA 4.2분 특종 주주-신상심은 동문 14명/김지영 동문의 비타인 열/최지영인 신상의 패러독스
	18. <이학특성> LA 4.2분 특종 주주-신상심은 동문 14명/김지영 동문의 비타인 열/최지영인 신상의 패러독스
	19. <이학특성> LA 4.2분 특종 주주-신상심은 동문 14명/김지영 동문의 비타인 열/최지영인 신상의 패러독스
	20. <이학특성> LA 4.2분 특종 주주-신상심은 동문 14명/김지영 동문의 비타인 열/최지영인 신상의 패러독스
	21. <이학특성> LA 4.2분 특종 주주-신상심은 동문 14명/김지영 동문의 비타인 열/최지영인 신상의 패러독스
	22. <이학특성> LA 4.2분 특종 주주-신상심은 동문 14명/김지영 동문의 비타인 열/최지영인 신상의 패러독스
	23. <이학특성> LA 4.2분 특종 주주-신상심은 동문 14명/김지영 동문의 비타인 열/최지영인 신상의 패러독스
	24. <이학특성> LA 4.2분 특종 주주-신상심은 동문 14명/김지영 동문의 비타인 열/최지영인 신상의 패러독스
	25. <이학특성> LA 4.2분 특종 주주-신상심은 동문 14명/김지영 동문의 비타인 열/최지영인 신상의 패러독스
	26. <이학특성> LA 4.2분 특종 주주-신상심은 동문 14명/김지영 동문의 비타인 열/최지영인 신상의 패러독스
	27. <이학특성> LA 4.2분 특종 주주-신상심은 동문 14명/김지영 동문의 비타인 열/최지영인 신상의 패러독스
	28. <이학특성> LA 4.2분 특종 주주-신상심은 동문 14명/김지영 동문의 비타인 열/최지영인 신상의 패러독스
	29. <이학특성> LA 4.2분 특종 주주-신상심은 동문 14명/김지영 동문의 비타인 열/최지영인 신상의 패러독스
	30. <이학특성> LA 4.2분 특종 주주-신상심은 동문 14명/김지영 동문의 비타인 열/최지영인 신상의 패러독스

본국 서울대에는 어떤 데도 없었다.



박준호 (인문대 78·번호사)

22호 2013년 4월

<기획특집> LA 4.29 폭동 2주년

한국인 이민자와 차별 탓에



김인수 (사대 55)

▶LA 4.29 폭동 21년 전인 1992년 4월 29일 흑인 Rodney King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LA 경찰들이 무기로 석방되어 촉발된 LA폭동은 폭동을 기억하는 우리 독자에게 많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한인 사가와 많은 재산과 함께, 인종차별에 대한 법적 제도가 아직 미흡하여 흑인(先著)한 이민 세대와 후작한 이민 세대에 대한 차별과 차별로 이루어진 LA폭동을 반추하고 있다는 이민 없이 없지 않을 것이다.

동양계 미국인은 지난 1850년 이래 서부 개척과 함께 철도 건설을 무기로 처음 시작됐다. 이민을 계기로 한 무제한 대량 이민으로 노동 임금의 폭락을 가져와 이민 지인 노조인 노조자들의 맞서와 맞선을 거쳐서 Chinese Exclusion Act of 1882 및 Asian Barred Zone Act of 1917 이민법으로 동양계 이민이 단절됐다.

그런데 아직도 미국인들의 머리 속에는 동양계 이민자들에게서 인종차별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우리 한국은 중국, 일본과 모든 문화·언어·종교가 다르다는 정체성을 확립하여 선진국으로서의 자부심을 심어 나가기 할 것이다.

▶케네디 이민법 케네디 이민법 이전에는 Bar Bride를 제외하고는 정식 이민은 거의 없었다.

과거 케네디 대통령이 임명한 조 존슨 대통령은 의회 의회에서 통과된 1965년 케네디 개혁법 가운데 이민 차별과 동양계 이민을 금지한 National Origin Quarter를 삭제 제정했다. 그러므로 동양 우방 정책이 연 2만 Quarter를 할당했으므로 한국에도 이민 신청을 했을 것이다. 필자는 이미 시기에 제2차 조지워싱턴 이민 14로 신청을 시작했다.

케네디 이민법이 통과된 역사적 배경은 Martin Luther King 목사가 주장한 흑인도 백인과 동등한 Civil Right Act 1963 이 발표되면서 인종차별의식이 희미해지고 우방으로서의 동양인에 대한 우리측이 적대감을

동시에 케네디가 가톨릭 출신으로 최초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돼 가톨릭에 대한 차별도 일소됐다.

▶한국인의 제1차 이민사 한국인 제1차 이민사는 1903~1905년에 걸쳐 화취하여

의 사할 수 밖에 없어 백인 감독의 제정 아래 노예같은 노동 생활에 시달렸다.

1차 화취이 이민이 늦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일제 치하로 미국에서 배후자를 구하기 힘들어 배만이 일생을 독신자로 고독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다.

필자의 큰 고모부와 고모님께서는 1903년 화취이 1차 이민자의 한 분으로 사천으로 건너와 미국으로 200년의 이민자로 한국에 정착했다.

▶한국인의 제2차 이민사 36년간 일제 치하로 종전된 뒤 우리의 이민은 케네디 대통령의 동양계 이민 차별 폐지법에 따라 1965년 이후부터 개척되어 시작해 현재 미국 인구의 0.5%에 해당하고 200년의 이민으로 이민자로 전개됐다.

제2차 이민사는 제1차 화취이 때와 같은 이민자의 역사적 배경이나 여건과 무관하다 다른 미국에서 여러 형태의 이민적 차별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에서의 경제에서 1대 1로 100% 달렸다는 실적으로 성공했다.

▶새로운 중심가 비즈니스는 제2차 세대를 이민을 하는 우리에게

“흑백대결로 시작된 폭동이 미

역사를 전례없는

흑한 변란으로 종말지은 이유와 동기를 법적 측면

뿐 아니라 역사적 측면에서 추궁해야 할 과제다”

안하고 온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당시 가발, 의류 배

매임으로 선택되고 점차 주로

업종으로 변화해 동종이 주로

흑인 시장 중심으로 정해져

각 도시마다 Martin Luther

King의 Civil Right Movement에

따라 발생한 LA와 Watts 폭동

후(1965~1967)에 의한 반발과

악랄을 당한 유대 상인들이 집

폐한 위험치 않은 한인들이 집

없이 버려지고 도시마다 개척

해 흑인들이 중대하고 패배

해 패배는 흑인 중심 시장과 제

2차 소외시켰다. 흑인들이 많은

방파막 민족으로서 우리들에게

“Brother!” 라고 호칭하며 환

영했다.

흑인들의 환대 속에 물러나

고 후배들은 가발정복의식

과와 의류·신발·화장·주류·

식·종교·취미·화장품·청바

지 수입 도합상, 대외도 도합

상 여러 가지 업종으로 변화

해왔다. 이민이 40여 년이 지

나니 현재는 동종 70% 정도가

한국 시장에서 생활권을 확대

해왔다.

▶흑인사회의 흑인 사회적

호감을 누려온 제2차 이민자들

의 평균 소득은 우리 백인 수

득액 앞선 1위를 차지하고 있

는 유대상인들이 우리들에게

환영시장을 물려주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문화 같

이 이민들이 발표된 폭발하는

민족적 갈등 작품의 폭동이

바다에 대성해 있었다는 사실

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 폭탄이 드디어 1992년 4월

29일 LA한인타운에서 폭발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미주 이민사 원거 자유를

이루고 있는 백인종 이민은

Columbus의 신대륙 발견(1492

년) 후 유럽의 해양세력 국가인

영국·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

네덜란드 제국들이 경쟁적으로

식민지 확장과 함께 미국 대

륙이 경제적·종교적 이유로 자

유 이민과 범죄적 추방을 목

적으로 한 정부 강제 이민 등

으로 도미해 정착했다.

백인종의 미국 이민사는 수

백으로 갈라졌다. 유럽에서 중

북해 편에 갔 이민은 유럽은

민족은 구 이민집단의 적대심

과 반해 때문에 신개척지를

찾아 정착했다.

필자가 살고 있는 미 동북부

최대 Boston New England에

신한 영국 이민지에서는 퀘커

Quaker 운동은 퀘커들이이

창성했고 South Irish Presby-

terian은 남부 미시시피 신

개척지를 찾아 수백에 없었다.

동부에서 쫓겨나 남부에 정착

한 Presbyterians와 유럽에서

사후로 강제추방(약 5만)된

흑인들이 1861년 1861년 이

래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제2차 노예 이민을 연중(약

백) 제해와 문화 동양에 노동

자료를 투입해 남북 전쟁

(1861~1865)에 의한 남북지

역사는 이민의 나라로서 세

를 얻었다.

문제는 백인 상가를 스쳐야

할 태동과 방향을 갑자기 바꾸

어 영항을 찾아 한시적 정

한 데 있었다. 문제의 초점은 누

가 왜 태동의 방향을 바꾸었

는 가 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흑인 문제에 밀려 동로 우

계 세력은 제2차 한인 이민자

들은 민족은 구 이민지인 흑

인 탓에 물러 나갔다가 생

과 재산을 빼앗기고 갔다.

미국은 이민의 나라로서 세

를 얻었다.

문제는 백인 상가를 스쳐야

할 태동과 방향을 갑자기 바꾸

어 영항을 찾아 한시적 정

한 데 있었다. 문제의 초점은 누

가 왜 태동의 방향을 바꾸었

는 가 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흑인 문제에 밀려 동로 우

계 세력은 제2차 한인 이민자

들은 민족은 구 이민지인 흑

인 탓에 물러 나갔다가 생

과 재산을 빼앗기고 갔다.

미국은 이민의 나라로서 세

를 얻었다.

문제는 백인 상가를 스쳐야

할 태동과 방향을 갑자기 바꾸

어 영항을 찾아 한시적 정

한 데 있었다. 문제의 초점은 누

가 왜 태동의 방향을 바꾸었

는 가 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흑인 문제에 밀려 동로 우

계 세력은 제2차 한인 이민자

들은 민족은 구 이민지인 흑

인 탓에 물러 나갔다가 생

과 재산을 빼앗기고 갔다.

미국은 이민의 나라로서 세

를 얻었다.

문제는 백인 상가를 스쳐야

할 태동과 방향을 갑자기 바꾸

어 영항을 찾아 한시적 정

한 데 있었다. 문제의 초점은 누

가 왜 태동의 방향을 바꾸었

는 가 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흑인 문제에 밀려 동로 우

계 세력은 제2차 한인 이민자

들은 민족은 구 이민지인 흑

인 탓에 물러 나갔다가 생

과 재산을 빼앗기고 갔다.

미국은 이민의 나라로서 세

를 얻었다.

문제는 백인 상가를 스쳐야

할 태동과 방향을 갑자기 바꾸

어 영항을 찾아 한시적 정

한 데 있었다. 문제의 초점은 누

가 왜 태동의 방향을 바꾸었

는 가 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흑인 문제에 밀려 동로 우

계 세력은 제2차 한인 이민자

들은 민족은 구 이민지인 흑

인 탓에 물러 나갔다가 생

과 재산을 빼앗기고 갔다.

미국은 이민의 나라로서 세

를 얻었다.

문제는 백인 상가를 스쳐야

할 태동과 방향을 갑자기 바꾸

어 영항을 찾아 한시적 정

한 데 있었다. 문제의 초점은 누

가 왜 태동의 방향을 바꾸었

는 가 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흑인 문제에 밀려 동로 우

계 세력은 제2차 한인 이민자

들은 민족은 구 이민지인 흑

인 탓에 물러 나갔다가 생

과 재산을 빼앗기고 갔다.

미국은 이민의 나라로서 세

를 얻었다.

문제는 백인 상가를 스쳐야

할 태동과 방향을 갑자기 바꾸

어 영항을 찾아 한시적 정

한 데 있었다. 문제의 초점은 누

가 왜 태동의 방향을 바꾸었

는 가 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흑인 문제에 밀려 동로 우

계 세력은 제2차 한인 이민자

들은 민족은 구 이민지인 흑

인 탓에 물러 나갔다가 생

과 재산을 빼앗기고 갔다.

미국은 이민의 나라로서 세

를 얻었다.

문제는 백인 상가를 스쳐야

할 태동과 방향을 갑자기 바꾸

어 영항을 찾아 한시적 정

한 데 있었다. 문제의 초점은 누

가 왜 태동의 방향을 바꾸었

는 가 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흑인 문제에 밀려 동로 우

계 세력은 제2차 한인 이민자

들은 민족은 구 이민지인 흑

인 탓에 물러 나갔다가 생

과 재산을 빼앗기고 갔다.

미국은 이민의 나라로서 세

를 얻었다.

문제는 백인 상가를 스쳐야

할 태동과 방향을 갑자기 바꾸

어 영항을 찾아 한시적 정

한 데 있었다. 문제의 초점은 누

가 왜 태동의 방향을 바꾸었

는 가 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동문 시 감상

낙원에 잡는다



김태한 (법대 46) 시인

솔을 바라봐 줄수록

낙원 멀어질

낙원에 잡는다

하지만

유혹(幼木) 자기(自己)의

성향

낙원에 떨어지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낙원에 잡는다

동문동정(일부 미주 중앙일보·한국일보 인용)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정책

발행처 : 미주 중앙일보



이재진 박사 '자랑스러운 UCLA인'

Claremont McKenna 대학 정치학과 의 명예교수인 이재진 박사(클레몬트 매켄 대학 65 정년직 교수)이 UCLA 동창회(회장 김성준)가 제정한 '자랑스러운 UCLA인'으로 올해 선정돼 최근 이대 대한 수상자를 가졌다.

다음은 UCLA 동문들이 이재진 박사를 이렇게 선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글이다.

“이재진 박사는님을 평생에 미국에

서 국제정치학자로, 교육자로, 한미 관계 및 북한 전문가로 활약해 오셨습니다. 미국 정부와 사회에 한반도 중·장기 일본 독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시키고, 미국의 극동 정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세계적인 석학이십니다. 또한, Asian Survey 등 주요 학술지 편집위원 이시며, 평생 동안 300여편의 논문과 23편의 영문 저서를 내셨습니다. 이재진 박사는님은 California

State Long Beach 대학 사회과학대학장, Korean대학 문리대학 부학장, Claremont 대학 국제 전략문제연구소장을 거치면서, 동아시아 국제정치 분야에서도 한국인의 정치학자로 자리매김 하셨습니다. UCLA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첫 번째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국사편찬위원회 자문위원, 통일연구원 자문위원, Korea Foundation 국제 자문위원 등 조국 및 국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박사의 업적은 UCLA와 동창회의 명예를 선양시키고 후배 동문들에게 귀감이 되었으므로, 이 박사를님 '자랑스러운 UCLA인'의 올해의 수상자로 모시고, 전 동문의 뜻과 정성을 담은 이 상패를 드려 이름 기탁하고자 합니다. 2013년 3월 15일 UCLA 한국동창회 회원 일동”

한편 이재진 박사는 이날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재진 박사는 그동안 미주 동창회가 때마다 실시해 온 'Brain Network Workshop'에서 정치사회 분야에 주제발표와 정치사회 분야의 사활을 많은 동문들에게 잘 알려 주었다.***

원로 금융인 벤자민 홍 동문 고국행



“40여년 미국 생활 집고 한국 갑니다” 현재 한국에서 국제 경영연구원 고문, 모교 금융경제연구원으로 복귀한다

원로 금융인 벤자민 홍 전 행장(사건이)은 40여년 넘는 미국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 정리차 LA에 머물렀던 벤자민 홍 전 행장은 “한국에서 바쁘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어 주 거둔다”

를 서울로 하기로 결정했다”며 “내년 7월 정도 미국 생활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8일 가족을 지인들을 초청해 받은 잔치를 끝낸 파티를 열고 인사를 전했다. 그는 “최근에는 ‘일본 경제 성공’에서 ‘미국으로 실패’로 태운다”는 주제를 놓고 쓰고 있으며 올해 안엔 휴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내 경험과 지식을 통해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며 살아가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전 행장은 1970년에 도미한 UCLA의 과정을 마친 뒤 유류 은행 등에 근무했다. 1988년 한미은행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나사와 세한 은행을 거치며 한일 은행계통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지난 2008년 은퇴했다.

벤자민 홍 전 행장은 현재 국제 경영연구원 고문, 모교인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연구원 자격으로의 특강 등을 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뉴스 방송의 대담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있다.***

이정주 동문 레지던시 작가 선정

프랑스 하문 뮤지엄 아티스트 레지던시 작가로

시애틀에 이정주(오보트지거거) 동문의 프랑스 다단 소속이 본느 장-하문(Jean-Jean) 뮤지엄이 실시하는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작가를 선정했다.

이와 따라 이정주 동문은 3월 15일 현재 프랑스에 머물러 있는 이 정주 동문을 스튜디오에서의 미술작업과 전시회를 끝까지, 선정작가의 작품 한 점은 뮤지엄에 기증, 영구 보존된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매년 12명의 외국작가를 선정, 한 달씩 머물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펠로우 프로그램이다.

지난 해까지 워싱턴 한미미술가협회 회장으로 활동한 이 동문은 모교 미술과 대학원 회화, 프랑스 퐁 발레리 대학에서 미술사,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미술사 등을 전공했다.***

북가주 한미변협 심의회장에 구대웅 동문



북가주 한미 변호사협회(KA-BANC)에 구대웅 심의회장(사건·40)이 취임했다.

KA-BANC는 지난 3월 27일 샌프란시스코 모건 루이스 로펌에서 총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대웅 동문 심의회장의 취임식을 갖고, 정권 1차원 서약 부여에 대한 토론 및 향후 변호사협회와 나자갈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구대웅 심의회장은 “현재 정가변으로 개편하고 있는 우리 법률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우리 회원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는 직간접으로 거듭나겠다”며 “후배 변호사들을 이끌어주는 것은 물론, 회원들의 좋지 진출사회의 기회와 추진력 강화를 위해 할 일”이라고 말했다.

구 회장은 “KA-BANC 회원들은 지

극작가 장소현 동문 시집 출간

다섯번째 시집 '사랑 사랑' 발간... 이미지에 대한 그리움, 삶에 대한, 이민자의 쓸쓸함 등을 절절하게 표현

시인이자 극작가인 장소현 동문이 다섯 번째 시집 '사랑 사랑' (해루의 출판사·사건)을 출간했다.

발매 다섯 번째 시집인 이 책은 이미지에 대한 그리움, 지난 삶에 대한 반성, 삼팔리까지도 이민자로 살아가는 비록 인생의 쓸쓸함 등이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한 조국 청년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통일에 대한 긴장감, 열린, 오랜 별들의 미술작품에 대한 장동 등을 담은 이 40여15부로 나누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장소현 동문이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시로 쓰는 미술'은 '도는 작가'를 제5부에서 소개하고 있다.

장소현 동문은 모교 미술과 일본 와세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극작가, 시인, 미술평론가, 저역신문 발행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한편으로는 그동안 시집, 희곡집, 미술서, 칼럼집 등 모두

사랑 내로 보시리 돌아와
달라진이런
그애야 미소소
시애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일

사랑 사랑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일

사랑 사랑

장소현 시집

사랑 사랑

장소현 시집

장소현 시집

18편의 책을 펴냈으며 현재 캘리포니아주 발행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책값은 12달러. 문의 (818)344-6257



안영실·이지원 동문 듀오 리사이틀

봄을 일리는 동문들의 음악무대 피아니스트 안영실, 플루트 이지원 '피아노와 플루트의 서정' 북가주 연주회

북가주 피아니스트와 플루트 연주자의 환상적인 연주가 펼쳐졌다.

지난 3월 23일(토) 오후 7시 안영실 피아니스트, 이지원 플루티스트의 듀오 리사이틀이 신교세

쁘미 트리야노 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리벤트론의 소나타, 라이베레의 발라드 등 초기 교향곡을 하에서 후기 낭만의 음악가들의 아름다운 선율이 피아노와 플루트의 하모니로 재현됐다.

“싱가 조의를 표현하다”

김기영 동문(골프 68, 의대 62년 입학, 65년 졸업) = 3월

<안영실(원곡) 동문과 이지원 동문은 연주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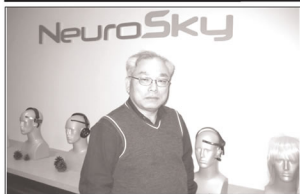
안영실 동문은 “피아노와 플루트의 기교를 필요로 하는 곡들을 선정했다”며 “서정적이면서도 경쾌한 연주 무대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피아니스트와 플루트 연주자인 안영실 피아니스트는 모교 음악 졸업 후 북가주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벌여 왔다. 이지원 플루티스트는 모교 음악대를 졸업한 뒤 스위스 베른 음악에서 한국인 최초로 수석 졸업의 영예를 차지한 바 있다.

두 서을 활동하다 동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했다.

쁘미 트리야노 극장은 베르사이 유 건물을 축소해 놓은 듯한 수려한 외관과 어스투미가 뛰어난 건물 연주자들이 선보이는 공연

31일 Chicago에서, 연락처 53 Devonshire Dr. Oak Brook IL 60523. Tel. 630-887-7322.



실리콘 밸리 뉴로스카이 이구형 박사

기술혁명자(CTO) "뇌와 기술로 세계 시장을 정복한다" 한국 기술에 미국 자본과 경영력 집중. 집중력 훈련에 획기적 효과. 업체로부터 러브를 받으며 1인 3인 만으로 일을 가능케 한 영웅

한국 기술이 미국 자본과 경영력을 만나 미국식 기업으로 성장했다. 뇌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뉴로스카이(Neurosky)'의 기술 원천지는 한국이다. 한국의 웹-네트워크와 모바일을 넘어 뇌와 기술을 결합한 전문가 이구형 박사가 실리콘밸리에 진출하기 현재 시장이 적합하도록 발명품을 세계의 기업과 대학 및 정부 등 잠재 고객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뇌의 집중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회사의 뇌와 헤드셋을 이용하여 '프로덕티브' 훈련은 인간의 뇌와 두뇌를 연결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집중력이 높아졌을 때 나오는 뇌파를 조절하고 조화시킬 수 있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구형 박사는 지난 2004년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뉴로스카이'는 세계최초인 뇌파(EEG)와 눈동자 움직임(EOG)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물을 움직이는 뉴로기술을 적용한 '뉴로헤드셋' 제품을 최초로 개발한 기술 기업이다. 이 기업의 '뉴로헤드셋'은 손목에 착용하고 헤드셋과 무선으로 연결되는 송신단, 자동화된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사인처리 뇌파와 눈동자 움직임을 상하좌우 및 각도별로 측

정할 수 있다는 의미. 뇌파와 눈동자 움직임의 생체신호를 결합해 그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뉴로통합형 장치다. 이와 같이 기술을 활용하여 집중도와 안정도를 측정할 수 있어 사용자의 뇌파상태를 체크하며 집중력 훈련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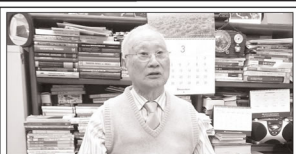
기술혁명자 이구형 박사는 "게임 뿐 아니라 의료, 장난감, 기업교육, 교육, 국방, 스포츠, 모션산업, 재활치료 분야까지 넓게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며 미래 기술에 대한 적용 범위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이구형 박사는 모산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버지니아 공대에서 인공지능 박사 학위를 받은 뒤 16년과 연구는 수석연구원 25년과 연구 개발 경험을 축적한 감성공학의 전문가다.

코딩경영인 대안계 스타트업 양상을 만난 이구형 박사는 두 개의 경험을 활용, 미국-중국-대만-일본 투자사로부터 지금까지 38만 달러 이상 투자받은 등 기업가치 상승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 이르렀다.

스탠퍼드 양씨는 트라이랜드(Triland)를 나스닥에 상장시켰고 자일링스와 세이먼에서 부사장을 맡았던 글로벌 기업으로 이 박사와의 기술에 대한 가치 인정에 합류했다.

뉴로스카이의 기술은 헤드셋 또는 센서가 뇌파를 감지해 프로그램 또는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으로 그와 같은 기술을 현실화하는 두 혁신이라는 기사의 차별화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정광섭 교수 영어 자서전 출간

'나의 오솔길' '소소함 속에 행복했던 내 인생'

"그동안 미국에서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누리를 살아가는 자유인으로서 자유인으로서 얻은 것들을 잊고 자유와 평온의 관계도 잊었습니다. 소소하게 하나 둘씩 깨달으며 살아온 길에 나의 오솔길입니다."

정광섭 교수는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영어 자서전 '나의 오솔길(My Pathway)'을 출판했다.

교수라는 안정된 직업에 정직하고 1971년 도미, 베이직에서 터를 잡고 산지 42년, 처음 정광섭을 하며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제는 다 잊은 손자-손녀의 활력이 있다.

"교사를 하기 전 서울고교 물리 교사도 있었다. 당시 학생 9명 이상이 무리지어 있으

면 제법인 위엄으로 잘학을 때였다. 교육자로서 내 자식을 이렇게 억압받는 환경에서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며 그만 두었다는 회고도 있었다.

이들은 각각 부통령 대외교섭차와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정광섭 교수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정광섭 교수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정광섭 교수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정광섭 교수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정재건 대표 관광 세계화 서적 출간

'Lo-o(로)이 놀자 뉴욕, 함께 재미있게 놀자'

기회의 땅으로 간주되는 경제, 문화, 패션의 메카 뉴욕에서 "다자간으로 승부하겠다"며 1981년 유학한 정재건(57) 세이조유아(Jay Joshua) 대표. '아버지(Jay)와 아들(Joshua)' 영문 이름을 붙여 1988년 설립한 세이조유아는 뉴욕 이민자들과 세이조유아는 캐리비안 등 수천 개의 기업들을 설립하는 등 유대인이 운영하는 시티 머천다이스 시티에 이어 뉴욕 제2의 기업들(Souvenir)업체로 급성장했다.

뉴욕 한인계인연합 회장 겸 세계한인연합회장(회장직)인 정재건의 2007~2009년 유학한 정재건(57) 세이조유아(Jay Joshua) 대표. '아버지(Jay)와 아들(Joshua)' 영문 이름을 붙여 1988년 설립한 세이조유아는 뉴욕 이민자들과 세이조유아는 캐리비안 등 수천 개의 기업들을 설립하는 등 유대인이 운영하는 시티 머천다이스 시티에 이어 뉴욕 제2의 기업들(Souvenir)업체로 급성장했다.

한 한국 건축 기술, 기복상-용작상-완작상 등 한 개의 장을 디자인, 운송물 등 한 개의 세 가지에 널리 수출할 수 있는 특별한 장을 디자인하고 강조했다. 이인 캐비티를 설계, 모자 등 패션상품과 액세서리 등에 입체 기법용 판매대에 전열한 원형의 지갑을 열 수 있다는 게 자랑이다. 그가 최근 한국의 드 시몬드와 각종 관광상품의 제작과도 관계한다. 뉴욕의 패셔너블 'Lo-o(로)이 놀자 뉴욕, 함께 재미있게 놀자'를 펴낸 자라다도 이에 이따다.***

그는 서울대 응용미술대학원 3학기 때 도미, 뉴욕의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그래픽디자인과 컴퓨터그래픽 디자인을 마쳤다. 뉴욕대 대학원 박사과정 2학기 때 휴학하고 일본 후쿠오카 대학의 예인상 등 뉴욕의 주요 상설품을 받은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활동했다. 다년간 관광기념품 업체 스타로 활약해 온 계기가 있다.***



서양화가 유수자 동문 개인전

화가이자 조각가로 워싱턴 유수자 동문에서 12차에 개인전... '아트스페이스 대동사 이종진 주'

서양화가이자 조각가인 유수자(50)는 12차에 개인전... '아트스페이스 대동사 이종진 주'

유수자는 "이번 전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유수자는 "이번 전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유수자는 "이번 전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유수자는 "이번 전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유수자는 "이번 전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유수자는 "이번 전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유수자는 "이번 전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유수자는 "이번 전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불타는' 데리코라, 2008년작

졸업했고 정경이와 미술교사인 김성영 선생과 한국 조각가 원로인 모로 미대 회화인 선생, LA에 거주하는 안영(도원) 선생에게 배우고 영향을 받았다.

모로 미대 졸업 후 1967년부터 대한일보 사진기자로 일하다가 1970년 미국에 와서 타운스데 미술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는 매릴랜드에 거주하면서 뉴욕 화단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수자는 그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12번의 개인전과 수십회의 그룹전에 참가했다. 미국에 온 뒤에는 주한 미국문화원과 미국문화원에서 활동했다. 유수자는 "이번 전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유수자는 "이번 전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유수자는 "이번 전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유수자는 "이번 전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유수자는 "이번 전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건강 의학 칼럼<6>

다이어트의 역사와 숨겨진 진실 이야기<상>



조형기(의대 86)
Aanapoli라 원장

<다이어트의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

다이어트의 생존전략과 방법론을 습득하려는 것이 제정되지 않았고, 농업이 제정되지 않았던 원시시대의 생존 방법론은 사냥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민 공룡을 사냥해 온 부족이 도마뱀에 둘러싸고 고기를 인위적으로 구워먹고 난 뒤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척박한 환경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어쩌다가 토끼만 마르길 점으로 된 흰색 죽창이나 죽창 부인, 혹은 아메리칸정도로 먹을 수 있을 뿐, 대부분은 인간들은 물론 생존의 원인이었다.

이런 환경에서는 살던다는 것 자체가 수치를 나타내 줬기 때문에 살기 전하는 것은 주로 높은 지대를 상징하는 곡물을 의미했고, 당근의 유래는 생물의 유전자였다.

유기나마나 해도 보았을 때 살려주는 게 존재하던 시절에는 살려주는 사람을 보면 낚자는 동물에게 생겼다. 그리고 여자는 부장직 만능이라 그랬고, 죽은 동물도 바쳐받지는 않았다. 불과 100년 전만은 사냥에 인식이 급격히 전환한 것이다.

<미대에 관한 기존의 변천사> 인류역사의 99.99%에 해당하는 원시 수렵사회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이유로 아마도 살찌고 자라가 유색체로 보이는 여자가 미인으로 매우 보였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한다.

문화가 발달되고 기복이 날기 시작한 원시 농경시대에는 흰색 발인을 사냥해 보았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한다.

문화가 발달되고 기복이 날기 시작한 원시 농경시대에는 흰색 발인을 사냥해 보았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한다.

문화가 발달되고 기복이 날기 시작한 원시 농경시대에는 흰색 발인을 사냥해 보았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한다.

문화가 발달되고 기복이 날기 시작한 원시 농경시대에는 흰색 발인을 사냥해 보았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한다.

문화가 발달되고 기복이 날기 시작한 원시 농경시대에는 흰색 발인을 사냥해 보았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한다.

문화가 발달되고 기복이 날기 시작한 원시 농경시대에는 흰색 발인을 사냥해 보았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한다.

문화가 발달되고 기복이 날기 시작한 원시 농경시대에는 흰색 발인을 사냥해 보았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한다.

하루 중일 일하는 빛을 받을 틈이 없는 직장으로부터 오후를 사모하러 골프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여성이 과거와 달리 거꾸로잡혀가며 그늘진 공간이 미인으로 인정받기 시작한다.

이 때를 즈음해 휴가 갈 돈도 시간도 없는 저층기 위해 일무리 행동으로 피부를 태워주는 인공물이 생겨난 것도 하나의 사회현상이었다.

현대에는 이런 기준보다 그저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꾸미고 난 후에 “나는 미인!” 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자기표현을 하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물론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다면 “넌 미적 감각이 시대에 뒤떨어진 미인을 알아보는 눈이 없다!” 고 말해주고 가버릴 것이 있는 것이 장미피도 한다.

실제로 최고급 여성을 복원한 영국에서는 패션잡지 표지모델을 뽑을 때 50대 전후 해도 모델들은 나체감을 받았을 여성들이 수두룩하다.

그 전에는 웃보다는 여자를 보았는데, 이제는 웃을 잊었을 때 여자의 얼굴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웃는 표정을 가진 것 모였을 때 모델로 뽑히는 세리다임의 변화가 생겼기 때

를 제공한다.

결계 할라자면 원래 몸무게가 600도 그럴, 130 파운드였던 사람이 갑자기 특이하게 작아져서 100파운드 정도로 줄어든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상황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고혈압·협심증·당뇨, 그리고 심장마비 같은 큰 병의 죽는다는 뜻이다. 특히에 되고 편진 말도 아까 마왕까지의 변화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유전적 정보의 다양성에 기인한 체형의 변이> 그런 살찐진 모두 잘못된 것이고 또 대대적으로 유전적 결함이 없기 위해 모든 체형의 기준에 따라 강제되어 인종을 시켜야 할까?

물론 어느 정도 한계를 초과해 극단적인 경우라면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 몸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는 데서 논란의 여지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들처럼 태어난 것은 서로의 양을 엄격히 통제해서 지방 분은 엄격히 제한하고 오로지 순수하게 탄수화물과 아미노산만 사료를 먹이고 신기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비소를 만들어

사람도 아예 크게 나뉘지 않아서 사람이 모두 같을 것 같기도

동문 시 감상



샌프란시스코

태평양 건너 금문도
돌아서면 샌프란시스코
항구는 난간(欄干)을 두들기는 어범(漁帆)의 향구

백색 고가 건물 줄비하며
황금빛 도시
사막처럼 태양을 보는
도시의 도시

겨울철 축축 내리는 비는

생존환경을 극대화 하려면 사람의 몸이 어떤 식으로 유전자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야 할지 한 상상력을 발휘해보기를

이런 환경에서 지방은 추위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굶어오래 견딜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에너지 자원이며, 단련된 근육은 수위를 항해에 충분한 장도

나타내어 근육의 강도가 때문에 저를 빼는 동안 생존에 거의 필요한 것은 여분의 근육을 가지고 있어 정리하고 그리고 청산해 분해하기 때문에 지방이 훨씬 더 잘 들어난다. 요요현상은 실존한다.

<사육신과 함께 거둔 손<사육신과 함께 거둔 손>

<무조건 굶는 것은 능사> 아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굶는 게 능사 아니라는 것이다. 이능은 바로 위에 설명한 그대이다. 몸 팔가드리는

그런데 바깥에서는 아무도 무슨 약을 먹어서, 특히 장에서 영양분을 소화흡수를 막아버리는 이상한 약물을 먹는 것도 무작정 굶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수

말한다. 대표적인 것들이 설사를 유발하거나 혹은 무슨 지방흡수를 막아버리는 생약 같은 것들이 다. 종류는 무한히 많다.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자를 자주 사서서 같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생약 같은 것들이 다. 종류는 무한히 많다.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자를 자주 사서서 같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생약 같은 것들이 다. 종류는 무한히 많다.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자를 자주 사서서 같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생약 같은 것들이 다. 종류는 무한히 많다.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자를 자주 사서서 같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생약 같은 것들이 다. 종류는 무한히 많다.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자를 자주 사서서 같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생약 같은 것들이 다. 종류는 무한히 많다.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자를 자주 사서서 같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생약 같은 것들이 다. 종류는 무한히 많다.

박노현 (사대 50)

청량제

풍만한 작업도시
샌프란시스코는
천신(天心)의 고장,
인성의 마을

북으로 천작지(田作地)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
사막으로 흘러진 고가도로로
만나는 부르는 명당의 도시

세계적 명문 버클리와
스탠포드가 자리잡고,
빅 베이스(Big Basin)를 휘서
하러
수많은 천원들이 산재해
자연의 숨을 쉴 수 있는 지구상
최적의 요람

다 해준다.

만약 이 말이 완전한 허구 또는 사기라고 느껴진다면 한민적 지혜를 빼앗아 누구를 시켜보

면의 필요는 없다. 다이어트 하는 동안 운동도 더욱 효과적으로 요요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꽤나 하얀 피부 쓰지 않는 근육을 빼고 싶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그리고 청산해 분해하기 때문에 지방이 훨씬 더 잘 들어난다. 요요현상은 실존한다.

<사육신과 함께 거둔 손>

<무조건 굶는 것은 능사> 아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굶는 게 능사 아니라는 것이다. 이능은 바로 위에 설명한 그대이다. 몸 팔가드리는

그런데 바깥에서는 아무도 무슨 약을 먹어서, 특히 장에서 영양분을 소화흡수를 막아버리는 이상한 약물을 먹는 것도 무작정 굶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수

말한다. 대표적인 것들이 설사를 유발하거나 혹은 무슨 지방흡수를 막아버리는 생약 같은 것들이 다. 종류는 무한히 많다.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자를 자주 사서서 같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생약 같은 것들이 다. 종류는 무한히 많다.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자를 자주 사서서 같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생약 같은 것들이 다. 종류는 무한히 많다.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자를 자주 사서서 같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생약 같은 것들이 다. 종류는 무한히 많다.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자를 자주 사서서 같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생약 같은 것들이 다. 종류는 무한히 많다.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자를 자주 사서서 같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생약 같은 것들이 다. 종류는 무한히 많다.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자를 자주 사서서 같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생약 같은 것들이 다. 종류는 무한히 많다.

“약을 먹은 다음부터 설사가 자주 나오고 뱃배가 아주 고통하며 방귀도 자주 나온다면 이런 종류의 약들은 대부분 조삼모사의 눈속임일 뿐이다”

본다.

결론은 다이어트라는 것은 미인되기 위한 한 방법이고 미인기 기원은 항상 좋은 Social Economic Status를 향하는 기준으로 정의된다.

<미인은 절멸일까>

<대사후증후군(Metabolic syndrome)>는 단순히 말해 너무 비만해진 허벅지같은 근육통증까지 부르는 자제에 미로 같은 소용와 행동을 따라오는 것들은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생리학적

전진 단계 다양성은 아예 바뀌어 가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가게 될 것이다. 현대인들의 비만과 고지혈증은 다 같은 것이지만

살찐다는 게 건강에 좋지 않음

할수도 있는 의미는 단조

이런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잘 먹고 또 더 잘 체지방을 축적한다.

이들이 먹었을 때는 유전자 설계가 잘못되었다, 혹은 불리한 다윈보다 나은 시대

지방을 적대시 하는 문화와는 정 반대이다. 아마 원시 수렵시대에 태어났다면 비만으로

우울하고 살찐 게 분명하다.

“장상 계획구”이라는 민명하고 아프고 힘든 질병의 말과 무리가 창립하던 시절에는 생

문 가능성은 극대화시켜주었

이,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전적 다양성은 어떤 상황에

서도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높

여 한일일 가능성이 있다. 현대에는 먹을 게 넘쳐나서 인

는 아니다.

다시 말해 여분의 에너지가 있

다면 그걸로 여분의 근육을 만

다는 것이다. 이미 의학계로 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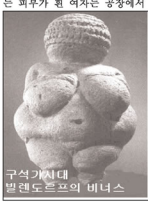
한 것인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해결은 먹을 때 배는 지방이

면저 차는데 굶을 때는 지방이

면저 차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불이 에너지의 몸무



구석기시대 발렌도브르의 비너스



그리스시대 밀로스의 비너스

이달의 초대재미<15> '신라 아메리카' 이기훈 전 회장

‘재인부천’의 전형적 성공 모델

약관 38세로 ‘국영기업체’ 부사장직에
미국에선 ‘신라 아메리카’ 회장 역임

‘조제천용(趙濟晉用)’이라면 좌진(左進)이 나오는 말이다.

‘조나와 인물은 진나라가 이용한다’는 것이다.

뛰어나고 두들든 중 상남자가 기 경여에 어울리는 본분이지 싶다. 일부가 우리 고국을 위해 일하고 있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미국사회가 이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趙材美用’이 아니라, 우리 조국으로서의 장으로 이르기 위해서는 일이다.

황대만 황은 생애 중 두말한 축적(足跡)을 남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고국에서는 수산개발공사 사장 직책을 역임했다.

미국에 와서는 1978년 한국상사 지사부의 설립 당시 회장을 맡아 봉사했으며 1983년에는 제대 남가주 동창회장을 맡아 헌신했다.

이뿐만 아니라 일찍이 1982년 신라대 의과대학 미주 현지법인 ‘신라 아메리카’의 대표로 30여 년에 걸쳐 일했으며 지금도 은퇴했다.

이기훈(월명 59) 전 회장의 이이다. 공로훈장대 수훈자인(舊 義人) 이기훈 원장주인이 이기훈 전 회장을 만나한다.

서로 친하게 붙속 충고로써 니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일정해 만주 목장단에서 조종할 때 다니다가 8.15 해방을 서서 온다. 수산개발공사 프랑수아 신철 장인친동창회로 배경이요, 1회 졸업생으로 특약인 사대부문에 합격되니 교장선생님이 다들 축하 원서는 아예 내지도 못하게 하는 바람에...” (당시 만 한에서 30명이 사대부문에 지원했으나 이 전 회장 혼자 합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대부고 시절 아르바이트 매 피스드가 자자한데요.”

“허허허. 고교 2학년 때 학원 강사 노릇했던 것이 알려졌네요. 당시 동대문구 창신동에 ‘송인 영학원’이 있었으며 유명했던 신철용(사대부)·정경진(전 대우)씨 등과 같이 강의했지요.”

“고교생 신분으로 학원 강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던 일로 당시 사대부문생을 자라노로 하여 학원 원장이 이 전 회장의 특유한 성격 소문을 듣고 직접 채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르바이트로 임시종업비 지장은 없었다요.”

“사실 법대 지망생으로 아르바이트에 너무 시간을 빼앗겼고 돈의 걱정했지요. 그런데도 강사로 가는 중엔 별다른 고민 없이 계속 했는데 그걸 잘 생각해 보았는 데 요즘엔 합격하자 제 한숨 놓았지요.”

“법대를 나와서 어떻게 수산개발공사로 진출하게 되었는지요?”

“우연일기다만 대학졸업후 1955년 서울에서 FPG가 주관하는 DFC(대형 양 수산가치관리위원회) 국제 총회제 회칙집행 요원으로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61년 박정희 군사정부가 들어섰어요. 나는 군에서 제대하면서 다나수출에 들어가 이불 차관취환과에서 일하게 된 것이 동기라 되겠습니다.”

“이불 차관취환과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당시 이탈리아·프랑스에서도 차관이 필요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서재로 길을 개척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놀라 앉았지요.”

“필리핀에서 상사지사회의 회를 처음 만드셨던데요.”

“남가주에서 살다 보니 우리나라 상사 지사들은 물론해 이들을 만나고 필리핀이 주파수회까지 제로부터 판매에 행사하는 것으로 할 기구가 결실해 필요했어요.”

그리고 1978년 이병훈(보안 55) 동문과 함께 협회회를 조직해서 미국 회장을 맡아 일했었습니다.”

“그러한 한국 대표로 러시아와 여러 회의를 고집하셨던데요.”

“러시아의 갑자기 반도 배럴을 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황금강이름이요. 1975년 고국 정부가 이기훈의 귀국이 없어 망명을 모욕한 중 국내 일제 대표들을 인출해 모스크바로 피웠지요. 당시 수위를 본과 만리하는 러시아 대표와 협상을 벌여 몇 해에 3만 달러에 이르는 어업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나라 첫 귀국 후임으로 상당한 양이었다.)

“그런 결실이 ‘신라 아메리카’를 세운 동기도 되었지요. 당시 수위를 본과 만리하는 러시아 대표와 협상을 벌여 몇 해에 3만 달러에 이르는 어업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나라 첫 귀국 후임으로 상당한 양이었다.)

“그런 결실이 ‘신라 아메리카’를 세운 동기도 되었지요. 당시 수위를 본과 만리하는 러시아 대표와 협상을 벌여 몇 해에 3만 달러에 이르는 어업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나라 첫 귀국 후임으로 상당한 양이었다.)

“그런 결실이 ‘신라 아메리카’를 세운 동기도 되었지요. 당시 수위를 본과 만리하는 러시아 대표와 협상을 벌여 몇 해에 3만 달러에 이르는 어업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나라 첫 귀국 후임으로 상당한 양이었다.)

“그런 결실이 ‘신라 아메리카’를 세운 동기도 되었지요. 당시 수위를 본과 만리하는 러시아 대표와 협상을 벌여 몇 해에 3만 달러에 이르는 어업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나라 첫 귀국 후임으로 상당한 양이었다.)

“그런 결실이 ‘신라 아메리카’를 세운 동기도 되었지요. 당시 수위를 본과 만리하는 러시아 대표와 협상을 벌여 몇 해에 3만 달러에 이르는 어업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나라 첫 귀국 후임으로 상당한 양이었다.)

“이후 수산개발공사로 옮기게 되었지요.”

“1963년 국영기업 설립을 위한 공산법 제정 설부에 참여한 그 중 하나인 수산개발공사 기획과장으로 진보했지요.”

“수산개발공사에서는 주로 어업 일을 하셨습니다.”

“원칙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원양업에 의한 물의 확보는 상상할 수 없지요. 원양업 진출을 위해 남가주 기슭 플린트스 만으로 1차로 30여척의 선박을 건조했지요.”

“참치잡이선 Long Liner선 등을 비롯해 북양의 Trawler, 공로선, 운반선 등을 건조했고 어장 보수국과 일할 정도 제해했지요.” (이 전 회장은 이같은 공로로 조크수 승진해 30대 초반에 이사를 두번 연임한 뒤 불과 38세로 부사장, 그리고 이어 사장직으로 임명됐다. 당시 국영기업 제책서는 전후부수했던 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기 성공적 급진생활 도중에 두드러진 업적을 이뤘지요.”

“수산개발공사는 사업 성격상 1974년 말 민영화 작업을 끝내고 잠시 미국을 방문했지요. 그런데 막상 미국생활을 해보니 이곳에



1 이기훈 회장이 글프장에서 가족과 함께 했다. 왼쪽이 작은 딸 Janet, 이자, 부만, 큰 딸 Joann

회장이 원양업에 있어 미국에 현지법인을 만들 1982년 ‘신라 아메리카’를 새해 대표가 됐어요.”

“원양업에 현지법인이 어룬 일이 아닐 터였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선박도 본래 인력대가 원양업에 필요한 나라이다. 현지법인을 위해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었어요. 대표적 아종인 Tuna를 비롯해 세계 어느 곳도 어획 쿼터 교섭은 물론엔 달이 현실이라야 할기적으로 어획량을 늘일 수 있었지요. 그런 의의에서 ‘신라 아메리카’는 어획량의 한도 한양업의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 첨단시설이려면 어떤 선정을 운용하셨는지요.”

“1982년 이 선박제대로 회회 회회회를 만드신 계기와 예제 수산개발공사의 경우

“그것도 동원했음은 물론 일을 하려야 할 것이지요.”

“별로 내세를 일출은 없지만, 초기에는 동창회 총회에 모이는 일이 불과 60-70명 이내로 부진했는데 동문 친목과 결속을 위해 1983년 처음으로 남가주 동문회 글프장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150 여명이 참가했어요. 당시로는 대단한 모임이었지요.” (이후 중대 이후 주와 ‘동창회’ 대항 글프회 에 이 회장이 이끄는 서울대원이 출전해 연속 우승하는 기록을 세웠지요.)

“가족사항을 좀 여쭙볼까요.”

“아내와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아들이 10살이 되고 결혼은 인 정해 살았 는데 후회없는 딸 두 딸을 주어 기쁜 것이지요(7)을 잘 이기고 있는 셈이지요.”

“수산개발공사 과장 시절 지출의 아내는 불문학(이화대) 출신으로 Air France 한국지사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 재회 중일 때 1983년 결혼하게 됐지요.” (당시 프랑스 대사 Chamber)가 워낙 두 분에게 큰 감을 가졌던 나머지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서 두 분을 결혼하게 결 국 청결인간까지 맡겼지요.)

“정말이 정정정정정. 비결이 러요?”

“그렇게 해서요. 그러나 학교 동기가 30% 가까이 사망했지요. 요즘에도 부유어 팔리지 않습니 다. 나는 그 운을 팔지 않았지 해 오고 있어 하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모습은 80대 중반인 필리핀으로 훨씬 젊어 보 였다.)

“‘鑛藏秘藏’(나를 잘라놓아 제 장정할)이 워낙 일이 심잡한 정도다. 자(自)보다는 타(他)에 알아주는 글필력에는 지금 연명에도 성급 한다 정도다.) 역시 제국은 하려는 내리는 첫(次)대 작)이 아니라, 상급, 사관대내 에 성공적 크리스마스 스포츠에 도 축하하니 들리다...”

“이기훈 전 회장 프로필”

▶1958년 대 동 ▶1961-62 학교회 의 대가수반선 차관취환의 간사

▶1963-74 한국수산개발공사 과장, 이자, 부사장, 사장대내 에 성공적 크리스마스 스포츠에 도 축하하니 들리다...

▶1975-77 오양수학회 미주지사장

▶1978-81 캘리포니아 상사지사 협회 회장 ▶1978-2012 신라대 의 미주법원 이사 ▶1983 남가주 서울대동창회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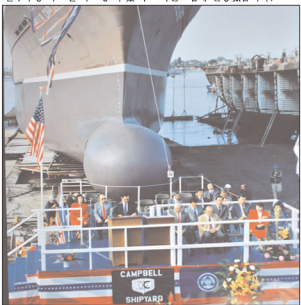
▶1988년 대 동 ▶1961-62 학교회 의 대가수반선 차관취환의 간사

▶1963-74 한국수산개발공사 과장, 이자, 부사장, 사장대내 에 성공적 크리스마스 스포츠에 도 축하하니 들리다...

▶1975-77 오양수학회 미주지사장

▶1978-81 캘리포니아 상사지사 협회 회장 ▶1978-2012 신라대 의 미주법원 이사 ▶1983 남가주 서울대동창회 이사

▶1988년 대 동 ▶1961-62 학교회 의 대가수반선 차관취환의 간사



“이후 수산개발공사로 옮기게 되었지요.”

“1963년 국영기업 설립을 위한 공산법 제정 설부에 참여한 그 중 하나인 수산개발공사 기획과장으로 진보했지요.”

“수산개발공사에서는 주로 어업 일을 하셨습니다.”

“원칙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원양업에 의한 물의 확보는 상상할 수 없지요. 원양업 진출을 위해 남가주 기슭 플린트스 만으로 1차로 30여척의 선박을 건조했지요.”

“참치잡이선 Long Liner선 등을 비롯해 북양의 Trawler, 공로선, 운반선 등을 건조했고 어장 보수국과 일할 정도 제해했지요.” (이 전 회장은 이같은 공로로 조크수 승진해 30대 초반에 이사를 두번 연임한 뒤 불과 38세로 부사장, 그리고 이어 사장직으로 임명됐다. 당시 국영기업 제책서는 전후부수했던 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 결실이 ‘신라 아메리카’를 세운 동기도 되었지요. 당시 수위를 본과 만리하는 러시아 대표와 협상을 벌여 몇 해에 3만 달러에 이르는 어업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나라 첫 귀국 후임으로 상당한 양이었다.)

“그런 결실이 ‘신라 아메리카’를 세운 동기도 되었지요. 당시 수위를 본과 만리하는 러시아 대표와 협상을 벌여 몇 해에 3만 달러에 이르는 어업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나라 첫 귀국 후임으로 상당한 양이었다.)

“그런 결실이 ‘신라 아메리카’를 세운 동기도 되었지요. 당시 수위를 본과 만리하는 러시아 대표와 협상을 벌여 몇 해에 3만 달러에 이르는 어업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나라 첫 귀국 후임으로 상당한 양이었다.)

“그런 결실이 ‘신라 아메리카’를 세운 동기도 되었지요. 당시 수위를 본과 만리하는 러시아 대표와 협상을 벌여 몇 해에 3만 달러에 이르는 어업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나라 첫 귀국 후임으로 상당한 양이었다.)

이달의 초대석 <Inertial Science 김동근(공대 60) 09>

“3살 버릇 80까지, 평생을 쟁이로”

1987년 ‘Inertial Science’ 창사 관성 항법 연구개발 및 부품 생산

김동근 동문은 항상 잔잔한 미소가 끊이지 않는 얼굴에서 풍요로운 마음의 여유를 느끼게 한다.

좋아하는 일을 해서일까? 학업 산에 오르며 마음을 다스린 까닭일까? 한시가 좋아 그 속에 파묻힌 탓일까?

“초대석의 초대해 주신님 영장입니다.”라며 인사를 하시는 동문님을 보며서,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깊은 자색의 마음을 가진 김동근 동문은, 동종복합기에서 80%의 시간을 들여다본다.

“김동근 동문님은 Rocket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현재 Inertial Science, Inc. 라는 회사의 사장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1987년에 창사하여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LA에서 50 mile 서북쪽에 있는 Newbury Park, Thousand Oaks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거의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은, 회사 이름처럼 관성 항법을 위한 연구 개발 및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 제품을 특수 용도의 Missile 이나 Rocket 항법, 유도, 제어를 하는 기기입니다. 설계, 제조, 조립, Rocket 을 발사하여 어디로 가느냐 자색로 어떻게 움직여 날아가느냐를 결정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우도 어떤 고객을 상대로 기기를 만드는지요?”

“그들로는 이미 미국 정부기관을 포함해서 여러, 대학까지 다 망라합니다. 최근에는 Europe 고객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독일, 영국, 스페인, 오스트리아, 브라질과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요는 Project가 있나?”

“미국 정부기관 이외에도, Blue Origin의 유인 항공 우주선, 오스트리아의 Hyper Sonic Scram Jet Rocket, 독일의 SEEFOX 라는 초정밀 관측 Rocket, 브라질의 지상 관측용 동체도 제작되어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ILR Aerospace Center에서는 차세대 Rocket을 Integrated System을 통해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Rocket 이외에도 무기인 Robot나 Camera 안정장치가 쓰는 기기도 소량을 만들고 있

습니다.”

“그러면 한국과도 연관이 있는지요?”

“나로호와 직접 관계는 없으나 나로호의 전 단계였던 한국 항공 우주 연구소의 과학 Rocket에 저의 기기가 탑재되어 사용되었습니다. Rocket나 Missile에 쓰는 장비들은 워낙 미국 정체가 엄격히 수출 및 국제간 거래를 제한하는 품목이 되어서, 수출 수입을 하려면 일일이 국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현재를 비롯한 여러 외국에서는 한국 기기를 부탄산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일에 종사를 하게 되셨는지요?”

“제가 미국 공군연구소 NAFB에서 일할 때 각종 측정기에 대한 연구했었는데 그것이 연해서 되어 Gyroscopes 을 만들고 각종 용을 연구하는 INDOUS라는 업체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1979년경 그 회사가 음향 기계와 Machine Shop 사용용 기구반이 제 나로호의 Dean Mechanism을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젊은 기술도 배웠습니다. 물론 일한 결과는 실망이었지요.”

“미 공군 연구소는 ‘와우, 세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 할만큼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실험설비 뿐 아니라 연구인력은 바둑 9단들로 packed 느낌이었습니까”

은 배우고하고 하는 교육도 볼품도 없이, 밤낮 가리지 않고, 2년 반의 교육 끝에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 당시 첨단 항법 기술들을 Hardware, Sensor부터 Algorithm 및 Software까지 대학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가족들에게는 너무 나 비현실적이었지요.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만 할까 싶었는데, 할 만큼 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설비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구 인력들이 마치 바둑 9단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아 느껴졌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2학년 후 독학식 선발되어 은 과학자였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된 분께 물었더니, 그들은 저의 젊은 열이, 수학 실력으로의 잘 이해할 수 있을 때 수업을 들으며 기가 되어 가면 제 요새 시골을 저를 위해 갔게했습니다. 결국 저에게는 실망스런 불가항력적인 방법”이란 판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Note는 것을 뒤적거리 보아도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자격입니다. 바둑 6단이 되어서 9단의 뜻을 알았을 때 그와 하고 하면 그런 것들이 야이. 저의 두번째 꿈이 무뎠어지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꿈은 무엇이었는지요?”

“John Muir Trail 에서 김동근 동문 부부

를 차려 그 당시로는 가장 첨단 기술의 항법 장치를 만들 기가 되었고,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회사와 기업을 함께 되였습니다. 한참 머리가 잘 돌아갈 때였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도저히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기술로 아직까지 버티며 일하고 있습니다. 나루 제 자질이 되었나 봅니다.”

“다들 유학을 가니 지도 유학을 했지요, 남달라 좀 다르다고 하면, 저는 대학교 당시 새로운 추진 장치(propulsion)에 관해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Dean Mechanism이란 것은 은 정력을 기구했습니다. 책도 보고, 교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남에게 부탁해서 일본 전문가에게 편지도 받았다고 했으나, 제가 이해할 만 한 대답을 얻지 못해, 결국 그때 기구와 일하고 있던 회사에 제가 기계와 Machine Shop 사용용 기구반이 제 나로호의 Dean Mechanism을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젊은 기술도 배웠습니다. 물론 일한 결과는 실망이었지요.”

“저는 평생 쟁이로 태어났나 봅니다. 어릴 때부터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시계, 축을 기구, 라디오 등 많이 열었고 부수다 보니 나중에 는 수선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장악하고, 학이 여러 분야로, 고등학교 때는 TV 수선, Stereo Music System 만드는 것으로 제법 알았을 겁니다. 그 당시 잘 때가 좋았나 봐요.”

“대학시절에 재미난 일화가 있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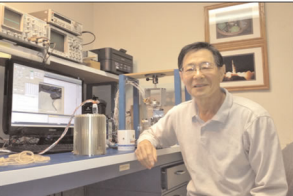
“저는 동문들한테서 들은 적이 있는데도 특별한 연유도 있는 게 아니라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하학으로เล่น 다녔습니다. 초등학 때 는 혼자서 부산 산을 해

다녔고, 중 2학년에서는 경기도 고등학교 산악반에 들어가 모험 여행을 열심히, 평평이 잘했습니다. 산을 잃을 줄 아는 사람이 생긴다고 할까요? 하지만 산을 어느 정도 알고 피니 줄을 잡고 도한 중 2학년 때 되었습니다. 특히 저의 3번째 좋은 경험은, 산, 산 줄이하고, 봉우리 다리를 잘 건너고, 바위, 나무도 잘 올라가는 배우자를 만났으니, 기회 있을 때 마다 마루와 눈치 보지 않고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다녔고 있습니다. 약 20년 전 부탄 땅과 네팔의 같이 산악group을 만

들어, 매달 한 번씩 등산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대학교 남가주 산악회도 학회들이 많은데도 참가하며 어찌 줄을 group이 되었습니다. 가끔씩은 북 산악회, Yosemi, Zion, Grand Canyon, Bryce Canyon, Red Rock Canyon 등의 Hiking과 Peru Inca Trail 등도 다녔습니다. 건강하기 뿐 아니라, 회원들 간의 Friendship, 이 는 group이든 아릅답다고 자부합니다. 7월 2일, 전라북도 유주, 김영 회장의 사자으로 남가주 동맹회에서 매년 주최하는가속인 Camping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석을 빌려, 조종사 등들은 비록해 협조해 주신 산악회 이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문에 계속>



↑ 김동근 동문이 사무실에서 Rocket 항법 기기를 일하고 두고

“첫번째 꿈은 8,000 meter급 산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오음으로 첫번째 꿈을 잡았습니다. 미 공군 연소소를 보고 나루 놀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넓고 배를 갈 때구나. 글세 높은 것은 다음 세상에서 나.”

“Dean Science 을 택하였는지요?”

“저는 평생 쟁이로 태어났나 봅니다. 어릴 때부터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시계, 축을 기구, 라디오 등 많이 열었고 부수다 보니 나중에 는 수선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장악하고, 학이 여러 분야로, 고등학교 때는 TV 수선, Stereo Music System 만드는 것으로 제법 알았을 겁니다. 그 당시 잘 때가 좋았나 봐요.”

“대학시절에 재미난 일화가 있었지요?”

“저는 동문들한테서 들은 적이 있는데도 특별한 연유도 있는 게 아니라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하학으로เล่น 다녔습니다. 초등학 때 는 혼자서 부산 산을 해

다녔고, 중 2학년에서는 경기도 고등학교 산악반에 들어가 모험 여행을 열심히, 평평이 잘했습니다. 산을 잃을 줄 아는 사람이 생긴다고 할까요? 하지만 산을 어느 정도 알고 피니 줄을 잡고 도한 중 2학년 때 되었습니다. 특히 저의 3번째 좋은 경험은, 산, 산 줄이하고, 봉우리 다리를 잘 건너고, 바위, 나무도 잘 올라가는 배우자를 만났으니, 기회 있을 때 마다 마루와 눈치 보지 않고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다녔고 있습니다. 약 20년 전 부탄 땅과 네팔의 같이 산악group을 만

들어, 매달 한 번씩 등산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대학교 남가주 산악회도 학회들이 많은데도 참가하며 어찌 줄을 group이 되었습니다. 가끔씩은 북 산악회, Yosemi, Zion, Grand Canyon, Bryce Canyon, Red Rock Canyon 등의 Hiking과 Peru Inca Trail 등도 다녔습니다. 건강하기 뿐 아니라, 회원들 간의 Friendship, 이 는 group이든 아릅답다고 자부합니다. 7월 2일, 전라북도 유주, 김영 회장의 사자으로 남가주 동맹회에서 매년 주최하는가속인 Camping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석을 빌려, 조종사 등들은 비록해 협조해 주신 산악회 이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문에 계속>



↑ John Muir Trail 에서 김동근 동문 부부



휴스턴 동창회

김태훈 동문 Open House & Crawfish Boil 행사 제공

휴스턴 동창회 회장 이호성, 공대 72가 지난 3월 30일 토요일 Texas의 Vidor에 있는 Claiborne West Park에서 김태훈(공대 57) 동문에 의한 Open House & Crawfish Boil 행사를 가졌다.

이날 모두 30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함께 하여 즐거운 토요일을 보냈다.

특히 행사장까지의 카풀이 필요한 동문들을 위해 회창단에서 미리 15인승의 밴을 준비해 동문 회원들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도모했다.

김태훈 동문의 초대로 치러진 이번 행사는 휴스턴 동창회가 가진 2013년 올해의 첫번째 행사였다.

서울대 교로의 교가 제창을 시작으로, 회창인사, 김태훈 동문 소개, 동문 소개, 자기 자신 및 가족 소개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날 김태훈 동문에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감사패 증정식이 있었다.

이어 지난 2월 텍사스 지역을 비롯한 모든 동문들의 안녕과 함께 축하를 보내는 인사로 유세

↑ 휴스턴 동창회 동문과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앞줄 왼쪽부터 이호성(공대 72) 조준원(공대 80) 서원환(공대 86) 김철성(공대 7) 최지인(최인성 딸) 최정화(김주환 부인) 유수현(사대 88) 이주목(김두근 부인) 민정원(김건호 부인) 김수빈(김건호 아들), 가운데를 왼쪽부터 김철성(김태훈 부인) 배옥주(정인성 부인) 정인성(공대 60) 배민원(미대 80 김세진 부인) 김태훈(공대 57) 최인성(공대 75) 김두근(공대 80) 유한형(공대 69) 하재홍(공대 88) 윤찬주(문리대 63) 김건호(공대 4) 및 줄 왼쪽부터 김세진(공대 86) 정인성(김철성 부인) 이만원(법대 4) 이만원(이만원 부인) 윤건희(윤찬주 부인) 주환(공대 78) 김세훈(유수현 아들)

만(공대 59) 이사장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남가주 동창회 말수회

산타 애니타 클럽에서 골프대회

남가주 동창회의 이니 서를 '말수회(회장 김용환-문리대 64)'가 지난 3월 27일 산타 애니타 골프클럽에서 골프모임을 가졌다.

'말수회'는 매 월 마지막 수요일 시니어들이 참가하는 친목 모임으로 주로 골프 회동을 통해 건강을 다지고 있다.

이 모임은 점차 호응이 커져 식구가 많아짐에 따라 행사 준비에 심혈이 집중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일사불란하고 모두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변히 이어지리라 생각한다. 지난 3월은 산타 애니타 골프장서 20명이 모여 초월의 신기

↑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석기 동문, 미주 동창회 박석준 고문, 오종호 전 회장, 제명애 남가주 전 동창회장, 김상한 남가주 동창회장.

려움을 만끽하고 또 영광이 높은 한식을 우리의 기호 필수품 이슬리와 더불어 영동식당서 화려하게 회연했다. 또 2차 및 종이를 맥도널드에서 커피로 마무리했다. 집회를 원하는 동문에게 항상 열려 있다.***

《말수회 회장 김용환》



식전 행사를 마치고 본 행사에 들어서는 이 날을 위해 멀리서까지 이른 봄의 햇살을 만끽하고 찾아온 동문들을 위해 김태훈 동문은 정성껏 준비한 300파운드 되는 Craw Fish를 대접했다.

점심 식사 후 부활절을 맞아 준비한 Easter Egg Hunt, 크로커와 달걀 찾기, 맥도날드 공 나기, 공 차며 놀이를 위해 제기차기 등을 함께 하며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호성 동문(공대 72, 휴스턴 동창회장)의 멋진 운드림 탑 타기 연주와 노래는 모임의 흥을 높여주었다.

이와 각 동문들께 대한 소개와 그동안의 삶을 나누는 시간은 재미와 더불어 선후배들간의 우의의 문득회 하는 값진 시간

↑ 이호성(공대 72-사진 왼쪽) 동문이 김태훈 동문(공대 57) 부부(부인 김태훈 여사)에게 감사패를 건넨다.

↑ 최인성(공대 75) 유한형(공대 69) 동문이 피드에 사용될 음식과 부식 상함에 대해서 열심히 확인하고 피드 중이다.

이 되었다. 공원에서의 행사를 마치고, 2차로 인근 명소인 Orange, TX의 Robert's Steak House에 들렀다.

이 자리에서도 역시 김태훈 동문의 대접으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며, 텍사스 휴스턴 동창회와 유쾌 개회와 미려한 대 한 이야기를 나누고 행사를 마쳤다.***

《후주 김건호(공대 91)》



뉴욕 동창회 & 골든클럽

모교 약대 동창회장 맞아 만찬 골든클럽 Vol.29 소식지 발간

뉴욕 동창회>> 지난 3월 17일, 모교의 서울대 약대 총동창회 회원우(원재 동국대 약대 약학) 회장께서 뉴욕 출장 길에 뉴욕지역 동창회(회장 김창수 약대 64)를 방문했다.

이날 뉴욕 동창회 김창수 회장은 원문우 회장을 맞아 Dinner를 나누며, 모교의 약대 동창회와 뉴욕지역 동창회 및 약대 동창회와의 유대관계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원문우 회장께서는 유머가 넘치는 분위기와 학생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가 있는 교육인이라는 사실이 실감나는 듯했다.

뉴욕 골든클럽>> 뉴욕 골든클럽이 지난 3월 18일 '골든클럽 소식' Vol. 29를 발간했다. 이 소식지에는 2013년 세해 들

↑(앞줄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뉴욕 동창회 김창수 회장이 원문우 회장, 뉴욕 동창회의 김문경(약대 81) 간사, 이희희(상대 79)사무총장 등과 함께 기념촬영했다.

어 치러진 신년 코레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경비 장산 등을 비롯해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7박 8일간 치러진 Cruise 여행에 대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뉴욕 동창회 김문경(상대 59) 전 회장은 이 Cruise에 대한 여행 후기를 게재하고 있다.

3월 28일의 산행에 대한 일정과 코스, 정기 콘퍼런의 일정 등 내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가 게재



있다. 이와 함께 3월부터 11월까지의 연례 행사 일정표가 일목요연하게 게재돼 있다. 이밖에 이준형 회장과 김창수 회선, 이용재 회선, 이경태 회선 등에 대한 동정이 실려 있다. 이준형 회장은 모교 발전기금 집행부 재무이사로서 오찬을 함께 하며 모교 기금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김창수 회선은 허리 통증 때문에

취중 수술을 받았다.

이경태 회장은 부인과 함께 지난 해인 12월 15일부터 30일까지 남극을 탐방하는 Quark Expeditions을 다녀왔다.

특히 이용재 회장은 지난 1월 20일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주변과 동문들로부터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김창수(미대 81·17위원장 겸 총무국장)>

참여 협력 명장

www.snuany.com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38 West 32nd Stree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Tel: 212.760.1768, Fax: 212.714.1167

snuany@gmail.com

제22차 평의원회의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뉴욕지역 동창회는 오는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Falls Church, Virginia에 위치한 The Westin Tysons Corner에서 열리는 미주총동창회 제22차 평의원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뉴욕지역 동창회는 동창회 역사 반세기를 앞두고 동문간의 우호 증진과 모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박선섭



회장 김창수

제34대 동창회 임원진 (July 1, 2012 - June 30, 2013)

회장	김창수 (약대 64)
전임회장단장	정민식 (상대 58)
이사장	박선섭 (공대 61)
부이사장	김문경 (약대 72)
간사	한경수 (문리 58)
감사	김문경 (약대 60)
수석부회장	박상현 (음대 69)
부회장	윤화하 (농대 80)
사무총장	이희재 (상대 79)
이사회간사	허희선 (상대 83)
정책위원장	성기호 (약대 57)
홍보위원장	권명태 (공대 69)
행사위원장	김광희 (간소 69)
IT 위원장	김영민 (미대 81)
관악회회장	조용범 (자연 01)

단과대별 동창회장

간소대	김광희 (69)
공과대	권명태 (69)
농과대	이진구 (80)
문리대	손병우 (69)
미술대	김광현 (57)
법과대	김영희 (80)
사범대	조달훈 (66)
상과대	박진우 (77)
생과대	최현진 (70)
성경대	김기태 (81)
약학대	이승우 (63)
음과대	조종지 (73)
외과대	백승현 (73)
치과대	조창현 (85)
대학원	송종길 (69)

뉴욕지역 평의원

오민석:	당연직
이진구:	당연직

김창수:	회장
박선섭:	이사장
박상현:	차기회장
윤화하:	부회장
이희재:	사무총장
이준형:	골든클럽회장
성기호:	정책위원장
김영민:	전 회장
김해태:	전 회장
한경수:	전 회장
정민식:	전임회장단장

동창회 이사회 (이사진 124명)



시카고 동창회

작가 이문열 동문 환영 모임 열어

시카고 동창회(회장 한의일, 공동 62)가 지난 3월 10일 동문 이문열 작가를 시카고 소재 음식점 '우래옥'으로 초청한 가운데 환영 오찬을 가졌다.

지난 3월 초 시카고를 방문한 이문열 동문은 첫 일정으로 7일 레이 포리스트 아카데미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과 만나 자신의 작품들에 대해 교감을 나누었다.

이문열 작가는 이날 본인의 대표작품인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영문명: 'Our Twisted Hero')을 수업 교재로 사용한 레이 포리스트 아카데미 10학년 학생들과 세계문학 수업에서 14명의 학생들과 직접 만나 이들의 질문에 진지하게 답변했다.

세종문화회(이사장 김호범·상대 69·시카고 동창회 부회장의 주시 박(의대 69) 사부총장의 동시 특석으로 진행된 이날 만남에서, 학생 중 한 명은 "그

시절(50금 시절)에 어떤 계기로 작품을 쓰게 됐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문열 작가는 "한국에서 탐부로 정치범을 잡 막으로 포획하지도 못했다 1986년 그 시절에 초등학교 캐피터에 데뷔해 권리와 지식인의 대립관계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문열 작가는 "원래 작품에 쓰인 단어들을 수준을 낮춰서라도 초등학생 교과서에 들어갈 작가 외에 미국·프랑스 등 중·고등학교의 교재로 사용되면

수필을 쓰도록 하였다.(전래 동화 리스프 및 전문 영구: <http://sejongcultural-society.org/writing/current/folktales.php>)

이런 홍보자들은 미국 39개 주와 캐나다에서 작품을 보내 오며 말리시는 학회이 British Columbia, Saipan (Marinara Islands near Guam) 등지에서도 보내왔다.

미국내에서 가장 많이 응모 작품을 보내온 5 주는 GA, CA, FL, NY, HI이다.

현재 수상자들의 사진과 프로필은 들어오는 대로 웹사이트를 update 하고 있다.

이런 경연대회의 심사를 맡아 주신 심사위원들의 프로필도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다.

<http://sejongcultural-society.org/writing/past/2013/judges.php>***<이사장 김호범>



↑이문열(왼쪽에서 4번째) 동문이 시카고의 레이 포리스트 아카데미 재학생들을 만나 세종문화회 사무 총장 주시 박(의대 69·왼쪽에서 5번째) 동문의 동시 특석으로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 느낌이 남다르다"고 덧붙혔다.

8일에는 'Global 시대의 한국문학'이라는 주제로 이문열 작가 외에 Columbia 대학에서 한국문학을 가르치는

Theodore Hughes 교수와 같은 세계의 소설들에 대해 번역 출판물을 하고 있는 비영리 출판사 Darkey Archive Press의 John O'Brien 디렉터를 모시고 일리노이 주립대(UIC)에서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 심포지엄을 위해 UIC Asian Study Group의 Nancy Ablesman 교수와 UIC 한인학생회가 적극 후원해 주었다.

9일에는 오후 시카고 글빈부의 원담 호텔에서 세종문화회(이사장 김호범·상대 69, 회장 주영혜) 주최로 '이문열 문학 콘서트'를 열었다.

이 콘서트는 시카고 지역 우리 동문들 외에도 500여 명의 한인 동포들이 참석해 이문열 작가를 통해 한국의 현대 정치와 문학을 접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10일에는 시카고 동창회의 초청으로 우래옥에서 환영 오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지난 3월 9일 오후 시카고 글빈부의 원담 호텔에서 열린 '이문열 문학 콘서트'에서 이문열 동문이 주시 박 동문의 사회로 동료들에게 문학 작품의 세계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세종문화회

제1회 세종작문경연대회 수상자 발표

세종문화회(이사장 김호범·상대 69, 사무총장 주시 박(의대 69)가 '제8회 세종작문경연대회' 수상자들을 발표했다.

세종문화회는 각 부문 심사결과를 받아서 수상자들을 다음과 같이 웹사이트에도 발표했다.

■수필 부문 수상자: <http://sejongcultural-society.org/writing/past/2013/winnersessay.php>

■시조 부문 수상자: <http://sejongcultural-society.org/writing/past/2013/winnerssiho.php>

세종문화회는 수상 작품들도 웹사이트에 올려 놓고 있으며

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다음 수상작품 리스트 페이지에서 링크들을 클릭하면 각 수상작품들을 읽을 수 있다.

<http://sejongcultural-society.org/writing/past/2013/entries.php>

제1회 경연대회에는 총 1천 503명의 작가가 응모했다.

시조부문은 848 작품, 수필부문은 655 작품이 들어왔다.

(수필 청년부: 141작품, 고등부 266작품, 중등부 248 작품) 청년부와 고등부는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영문 번역본을 주제로 했고, 중등부는 8개 한국의 전통 화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우리의 문화유산 탐방기

“‘직지(直指)’ 한민족의 찬란한 유산”



윤상석 (수의대 62)
유심광재단 동창회 전 회장

▶정주 고인쇄 박물관은 지난 해인 2012년 10월 27일 도의 'Home Coming Day' 행사에 참석해 많은 일정을 마치고 나사의 일이다.

가위의 굵은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던 지난 김춘현(의 60인) 선생님의 부락을 방문 때도 있고 도 고향에 있는 카페에서 한 잔의 레포고 싶었던 정주시 윤철동에 소재한 정주 고인쇄 박물관을 찾아 나섰다.

고국 방문을 하게 되면 항상 갑판하는 금속한 발전이지만 ‘직지(直指)’와 역사를 보관하고 있는 고인쇄 박물관은 그 구조나 연구, 기술들이 너무나 깊어져 있어서 더 감탄하고 자랑스러움을 금치 못할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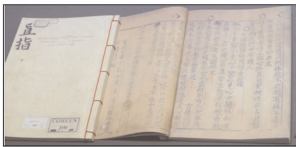
박물관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로 설명을 받게 되어 기술할 수는 있으나 방문 전 기술할 수 있는 내용들 동부들과 나누고 싶어 이이 기고한다.

▶‘직지(直指)’는 ‘직지’는 고려 때의 승려인 백운화상 경한(景顔 1298~1374)이 서적출사로부터 전해 받은 불조지심체요론(佛敎直指心體要論) 1권의 내용을 보관하고 1372년 편찬하였으며, 이를 1377년 정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본으로, 1378년 여주 회암사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금속 활자로 ‘직지’는 독일의 구텐베르크 ‘42행 성서’보다 70년 앞선 것으로서 세계사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이다.

이러한 한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우리 선조들의 찬란한 유산으로 세계 미디어 및 정보 혁명을 위한 기여를 하게 된 것이다.

미디어 및 정보의 혁명은 제1차 및 제2차, 제3차 기술의 사용, 제4차 기술의 사용, 제5차 기술의 사용



‘직지(直指)’ 한민족의 찬란한 유산

으로 들고 있다.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우리 선조들의 금속 활자 발명은 지난 1천여 년 동안 가장 중요했다고 볼 수 있는 제3차 미디어 및 정보 혁명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그것도 우리 고유의 명에서 우리의 정신 등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시대적 요청과 우리 선민들이 지닌 과학 기술이 이루어낸 총체적인 산물로, 금속 활자를 발명했던 고려는 당대 세계 최고의 문화 선진국이자 지식 정보의 강대국이었다는 것이다.

역사적인 기록과 정황을 토대로 고찰할 때, 우리 한민족은 최소 시기 1200년 경을 전후한 시점에서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여 책을 제작하였다.

그러나 한민족도 ‘직지’ 이전 금속 활자 인쇄술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그것도 ‘직지’ 상·하권 중 하권만이 전해지면서 금속활자의 최초 발명권인 고려의 우수한 문화 증거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직지(直指)’는 원래의 책 제목인 ‘백운화상 불조지심체요론(白雲和尚佛敎直指心體要論)’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백운 경한 선사는 강남 하부산의 석적 산사로부터 법을 전수 받았는데 불조지심체요론을 본수 주석하고 증보하여 ‘직지’를 만들었다.

▶‘직지’의 중심 주제는 직지심체(直指心體)로 ‘직지인심체성불(直指人心見性成佛)’이라는 전통의 명구에서 시작된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지시할 때 심성을 보게 되고 성불하게 된다’는 의미로 ‘참선을 통하여 도를 깨우치면 그 마음이 곧 부처님’이라는 뜻이다.

▶글의 내용은 주로 고승들의 설법과 참선에 대하여 불교 대담하는 형식을 채용하고 있으며,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는 계(戒)·송(頌)·환(讚)·가(歌)·명(銘)·시(詩)·법어(法語)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지’는 원래 상·하 2권으로 고국 우왕 3년(1377년) 정주목(현 정주시) 밖에 소재했던 흥덕사에서 백운화상의 제자, 석관과 달장이 부처님 보덕의 시조로 만들었다.

그러나 상권은 실종되고 하권은 그것도 한국이 아닌 프랑스의 국립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UNESCO에 등재-이 책은 현존하는 금속 활자 본의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인류의 인쇄역사 기술 변화를 알려 주는 중요한 증거물로 인정받아 받아 지난 2001년 9월 14일 유네스코의 기록 8일 세계 기록 유산 보로에 지정된 2004년 4월 28일 유네스코는 정주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유네스코 직지 상·하권(UNESCO/IKJI Prize Memory of the World Prize)’을 제정하고 매년 2년마다 직지의 날인 9월 8일 세계 기록 유산 보로에 지정된 사람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프랑스 공사가 반출-이 책을 프랑스로 가져간 사람은 당시 주한 프랑스 초대 공사를 지낸 Victor Collin de Plancy(1853~1922)다.

그는 한때 오렌주단 근무하면서(1888~1891, 1896~1906) 골동품과 우리의 옛책을 수집하여 자신의 모교인 몽파르네 학에서 보내기도 하였고, 한국에서 돌아갈 때는 직지를 포함한 많은 옛책을 프랑스로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후 1911년 3월에 한국·중국·일본의 골동품과 옛 서책을 여행에 붙였는데, ‘직지’는 골동품 수집가였던 Henry Vever(1854~1943)가 180 프랑스 프랑에 구입하였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유언에 따라 1952년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기증되었으며, 현재까지 도서관으로 109호, 기증번호 9832 번으로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문헌실에 보관되어 있고 있다.

한편 ‘직지’가 한국에 알려지고 연구가 진행된 것은 1972년 ‘제1회 도서의 해’와 1973년 ‘제29회 동양학 학술대회’의 두 번의 전시회를 통해서이다.

▶박문선 박사(사범대 사학과 50)가 ‘직지’ 하권의 마지막 장에 있는 개의 강행 기록에서는 이 책이 철주 흥덕사에서 신광(宣光) 7년 즉 고려 우왕 3년(의 1377)에 금속 활자로 인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 후 강주진·천해봉·손보기 등 20여 명의 학자들이 ‘직지’를 고증한 결과, 금속활자를 주로 사용하고 목판자가 혼용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밀람 주조법(密蘭鑄法)-‘직지’는 주조법-주조법은 주조는 주조법과 밀람 주조법이 있었는데 당시 사찰에서 각종 도구를 만드는 데 종종 사용되어 왔는데, ‘직지’ 본문은 글자 모양과 크기가 다른 점 때문에 활자의



↑정주 고인쇄 박물관 해설사 안금희씨와 기념촬영을 했다.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후 1911년 3월에 한국·중국·일본의 골동품과 옛 서책을 여행에 붙였는데, ‘직지’는 골동품 수집가였던 Henry Vever(1854~1943)가 180 프랑스 프랑에 구입하였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유언에 따라 1952년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기증되었으며, 현재까지 도서관으로 109호, 기증번호 9832 번으로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문헌실에 보관되어 있고 있다.

한편 ‘직지’가 한국에 알려지고 연구가 진행된 것은 1972년 ‘제1회 도서의 해’와 1973년 ‘제29회 동양학 학술대회’의 두 번의 전시회를 통해서이다.

▶박문선 박사(사범대 사학과 50)가 ‘직지’ 하권의 마지막 장에 있는 개의 강행 기록에서는 이 책이 철주 흥덕사에서 신광(宣光) 7년 즉 고려 우왕 3년(의 1377)에 금속 활자로 인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 후 강주진·천해봉·손보기 등 20여 명의 학자들이 ‘직지’를 고증한 결과, 금속활자를 주로 사용하고 목판자가 혼용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밀람 주조법(密蘭鑄法)-‘직지’는 주조법-주조법은 주조는 주조법과 밀람 주조법이 있었는데 당시 사찰에서 각종 도구를 만드는 데 종종 사용되어 왔는데, ‘직지’ 본문은 글자 모양과 크기가 다른 점 때문에 활자의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후 1911년 3월에 한국·중국·일본의 골동품과 옛 서책을 여행에 붙였는데, ‘직지’는 골동품 수집가였던 Henry Vever(1854~1943)가 180 프랑스 프랑에 구입하였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유언에 따라 1952년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기증되었으며, 현재까지 도서관으로 109호, 기증번호 9832 번으로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문헌실에 보관되어 있고 있다.

한편 ‘직지’가 한국에 알려지고 연구가 진행된 것은 1972년 ‘제1회 도서의 해’와 1973년 ‘제29회 동양학 학술대회’의 두 번의 전시회를 통해서이다.

▶박문선 박사(사범대 사학과 50)가 ‘직지’ 하권의 마지막 장에 있는 개의 강행 기록에서는 이 책이 철주 흥덕사에서 신광(宣光) 7년 즉 고려 우왕 3년(의 1377)에 금속 활자로 인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 후 강주진·천해봉·손보기 등 20여 명의 학자들이 ‘직지’를 고증한 결과, 금속활자를 주로 사용하고 목판자가 혼용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밀람 주조법(密蘭鑄法)-‘직지’는 주조법-주조법은 주조는 주조법과 밀람 주조법이 있었는데 당시 사찰에서 각종 도구를 만드는 데 종종 사용되어 왔는데, ‘직지’ 본문은 글자 모양과 크기가 다른 점 때문에 활자의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후 1911년 3월에 한국·중국·일본의 골동품과 옛 서책을 여행에 붙였는데, ‘직지’는 골동품 수집가였던 Henry Vever(1854~1943)가 180 프랑스 프랑에 구입하였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유언에 따라 1952년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기증되었으며, 현재까지 도서관으로 109호, 기증번호 9832 번으로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문헌실에 보관되어 있고 있다.

한편 ‘직지’가 한국에 알려지고 연구가 진행된 것은 1972년 ‘제1회 도서의 해’와 1973년 ‘제29회 동양학 학술대회’의 두 번의 전시회를 통해서이다.

▶박문선 박사(사범대 사학과 50)가 ‘직지’ 하권의 마지막 장에 있는 개의 강행 기록에서는 이 책이 철주 흥덕사에서 신광(宣光) 7년 즉 고려 우왕 3년(의 1377)에 금속 활자로 인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 후 강주진·천해봉·손보기 등 20여 명의 학자들이 ‘직지’를 고증한 결과, 금속활자를 주로 사용하고 목판자가 혼용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밀람 주조법(密蘭鑄法)-‘직지’는 주조법-주조법은 주조는 주조법과 밀람 주조법이 있었는데 당시 사찰에서 각종 도구를 만드는 데 종종 사용되어 왔는데, ‘직지’ 본문은 글자 모양과 크기가 다른 점 때문에 활자의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후 1911년 3월에 한국·중국·일본의 골동품과 옛 서책을 여행에 붙였는데, ‘직지’는 골동품 수집가였던 Henry Vever(1854~1943)가 180 프랑스 프랑에 구입하였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유언에 따라 1952년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기증되었으며, 현재까지 도서관으로 109호, 기증번호 9832 번으로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문헌실에 보관되어 있고 있다.

한편 ‘직지’가 한국에 알려지고 연구가 진행된 것은 1972년 ‘제1회 도서의 해’와 1973년 ‘제29회 동양학 학술대회’의 두 번의 전시회를 통해서이다.

▶박문선 박사(사범대 사학과 50)가 ‘직지’ 하권의 마지막 장에 있는 개의 강행 기록에서는 이 책이 철주 흥덕사에서 신광(宣光) 7년 즉 고려 우왕 3년(의 1377)에 금속 활자로 인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 후 강주진·천해봉·손보기 등 20여 명의 학자들이 ‘직지’를 고증한 결과, 금속활자를 주로 사용하고 목판자가 혼용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밀람 주조법(密蘭鑄法)-‘직지’는 주조법-주조법은 주조는 주조법과 밀람 주조법이 있었는데 당시 사찰에서 각종 도구를 만드는 데 종종 사용되어 왔는데, ‘직지’ 본문은 글자 모양과 크기가 다른 점 때문에 활자의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후 1911년 3월에 한국·중국·일본의 골동품과 옛 서책을 여행에 붙였는데, ‘직지’는 골동품 수집가였던 Henry Vever(1854~1943)가 180 프랑스 프랑에 구입하였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유언에 따라 1952년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기증되었으며, 현재까지 도서관으로 109호, 기증번호 9832 번으로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문헌실에 보관되어 있고 있다.

한편 ‘직지’가 한국에 알려지고 연구가 진행된 것은 1972년 ‘제1회 도서의 해’와 1973년 ‘제29회 동양학 학술대회’의 두 번의 전시회를 통해서이다.

▶박문선 박사(사범대 사학과 50)가 ‘직지’ 하권의 마지막 장에 있는 개의 강행 기록에서는 이 책이 철주 흥덕사에서 신광(宣光) 7년 즉 고려 우왕 3년(의 1377)에 금속 활자로 인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 후 강주진·천해봉·손보기 등 20여 명의 학자들이 ‘직지’를 고증한 결과, 금속활자를 주로 사용하고 목판자가 혼용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밀람 주조법(密蘭鑄法)-‘직지’는 주조법-주조법은 주조는 주조법과 밀람 주조법이 있었는데 당시 사찰에서 각종 도구를 만드는 데 종종 사용되어 왔는데, ‘직지’ 본문은 글자 모양과 크기가 다른 점 때문에 활자의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후 1911년 3월에 한국·중국·일본의 골동품과 옛 서책을 여행에 붙였는데, ‘직지’는 골동품 수집가였던 Henry Vever(1854~1943)가 180 프랑스 프랑에 구입하였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유언에 따라 1952년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기증되었으며, 현재까지 도서관으로 109호, 기증번호 9832 번으로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문헌실에 보관되어 있고 있다.

한편 ‘직지’가 한국에 알려지고 연구가 진행된 것은 1972년 ‘제1회 도서의 해’와 1973년 ‘제29회 동양학 학술대회’의 두 번의 전시회를 통해서이다.

▶박문선 박사(사범대 사학과 50)가 ‘직지’ 하권의 마지막 장에 있는 개의 강행 기록에서는 이 책이 철주 흥덕사에서 신광(宣光) 7년 즉 고려 우왕 3년(의 1377)에 금속 활자로 인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 후 강주진·천해봉·손보기 등 20여 명의 학자들이 ‘직지’를 고증한 결과, 금속활자를 주로 사용하고 목판자가 혼용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밀람 주조법(密蘭鑄法)-‘직지’는 주조법-주조법은 주조는 주조법과 밀람 주조법이 있었는데 당시 사찰에서 각종 도구를 만드는 데 종종 사용되어 왔는데, ‘직지’ 본문은 글자 모양과 크기가 다른 점 때문에 활자의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후 1911년 3월에 한국·중국·일본의 골동품과 옛 서책을 여행에 붙였는데, ‘직지’는 골동품 수집가였던 Henry Vever(1854~1943)가 180 프랑스 프랑에 구입하였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유언에 따라 1952년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기증되었으며, 현재까지 도서관으로 109호, 기증번호 9832 번으로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문헌실에 보관되어 있고 있다.

한편 ‘직지’가 한국에 알려지고 연구가 진행된 것은 1972년 ‘제1회 도서의 해’와 1973년 ‘제29회 동양학 학술대회’의 두 번의 전시회를 통해서이다.

▶박문선 박사(사범대 사학과 50)가 ‘직지’ 하권의 마지막 장에 있는 개의 강행 기록에서는 이 책이 철주 흥덕사에서 신광(宣光) 7년 즉 고려 우왕 3년(의 1377)에 금속 활자로 인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 후 강주진·천해봉·손보기 등 20여 명의 학자들이 ‘직지’를 고증한 결과, 금속활자를 주로 사용하고 목판자가 혼용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밀람 주조법(密蘭鑄法)-‘직지’는 주조법-주조법은 주조는 주조법과 밀람 주조법이 있었는데 당시 사찰에서 각종 도구를 만드는 데 종종 사용되어 왔는데, ‘직지’ 본문은 글자 모양과 크기가 다른 점 때문에 활자의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후 1911년 3월에 한국·중국·일본의 골동품과 옛 서책을 여행에 붙였는데, ‘직지’는 골동품 수집가였던 Henry Vever(1854~1943)가 180 프랑스 프랑에 구입하였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유언에 따라 1952년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기증되었으며, 현재까지 도서관으로 109호, 기증번호 9832 번으로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문헌실에 보관되어 있고 있다.

한편 ‘직지’가 한국에 알려지고 연구가 진행된 것은 1972년 ‘제1회 도서의 해’와 1973년 ‘제29회 동양학 학술대회’의 두 번의 전시회를 통해서이다.

▶박문선 박사(사범대 사학과 50)가 ‘직지’ 하권의 마지막 장에 있는 개의 강행 기록에서는 이 책이 철주 흥덕사에서 신광(宣光) 7년 즉 고려 우왕 3년(의 1377)에 금속 활자로 인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 후 강주진·천해봉·손보기 등 20여 명의 학자들이 ‘직지’를 고증한 결과, 금속활자를 주로 사용하고 목판자가 혼용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밀람 주조법(密蘭鑄法)-‘직지’는 주조법-주조법은 주조는 주조법과 밀람 주조법이 있었는데 당시 사찰에서 각종 도구를 만드는 데 종종 사용되어 왔는데, ‘직지’ 본문은 글자 모양과 크기가 다른 점 때문에 활자의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후 1911년 3월에 한국·중국·일본의 골동품과 옛 서책을 여행에 붙였는데, ‘직지’는 골동품 수집가였던 Henry Vever(1854~1943)가 180 프랑스 프랑에 구입하였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유언에 따라 1952년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기증되었으며, 현재까지 도서관으로 109호, 기증번호 9832 번으로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문헌실에 보관되어 있고 있다.

한편 ‘직지’가 한국에 알려지고 연구가 진행된 것은 1972년 ‘제1회 도서의 해’와 1973년 ‘제29회 동양학 학술대회’의 두 번의 전시회를 통해서이다.

▶박문선 박사(사범대 사학과 50)가 ‘직지’ 하권의 마지막 장에 있는 개의 강행 기록에서는 이 책이 철주 흥덕사에서 신광(宣光) 7년 즉 고려 우왕 3년(의 1377)에 금속 활자로 인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 후 강주진·천해봉·손보기 등 20여 명의 학자들이 ‘직지’를 고증한 결과, 금속활자를 주로 사용하고 목판자가 혼용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밀람 주조법(密蘭鑄法)-‘직지’는 주조법-주조법은 주조는 주조법과 밀람 주조법이 있었는데 당시 사찰에서 각종 도구를 만드는 데 종종 사용되어 왔는데, ‘직지’ 본문은 글자 모양과 크기가 다른 점 때문에 활자의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후 1911년 3월에 한국·중국·일본의 골동품과 옛 서책을 여행에 붙였는데, ‘직지’는 골동품 수집가였던 Henry Vever(1854~1943)가 180 프랑스 프랑에 구입하였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유언에 따라 1952년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기증되었으며, 현재까지 도서관으로 109호, 기증번호 9832 번으로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문헌실에 보관되어 있고 있다.

한편 ‘직지’가 한국에 알려지고 연구가 진행된 것은 1972년 ‘제1회 도서의 해’와 1973년 ‘제29회 동양학 학술대회’의 두 번의 전시회를 통해서이다.

▶박문선 박사(사범대 사학과 50)가 ‘직지’ 하권의 마지막 장에 있는 개의 강행 기록에서는 이 책이 철주 흥덕사에서 신광(宣光) 7년 즉 고려 우왕 3년(의 1377)에 금속 활자로 인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 후 강주진·천해봉·손보기 등 20여 명의 학자들이 ‘직지’를 고증한 결과, 금속활자를 주로 사용하고 목판자가 혼용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밀람 주조법(密蘭鑄法)-‘직지’는 주조법-주조법은 주조는 주조법과 밀람 주조법이 있었는데 당시 사찰에서 각종 도구를 만드는 데 종종 사용되어 왔는데, ‘직지’ 본문은 글자 모양과 크기가 다른 점 때문에 활자의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후 1911년 3월에 한국·중국·일본의 골동품과 옛 서책을 여행에 붙였는데, ‘직지’는 골동품 수집가였던 Henry Vever(1854~1943)가 180 프랑스 프랑에 구입하였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유언에 따라 1952년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기증되었으며, 현재까지 도서관으로 109호, 기증번호 9832 번으로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문헌실에 보관되어 있고 있다.

한편 ‘직지’가 한국에 알려지고 연구가 진행된 것은 1972년 ‘제1회 도서의 해’와 1973년 ‘제29회 동양학 학술대회’의 두 번의 전시회를 통해서이다.

▶박문선 박사(사범대 사학과 50)가 ‘직지’ 하권의 마지막 장에 있는 개의 강행 기록에서는 이 책이 철주 흥덕사에서 신광(宣光) 7년 즉 고려 우왕 3년(의 1377)에 금속 활자로 인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 후 강주진·천해봉·손보기 등 20여 명의 학자들이 ‘직지’를 고증한 결과, 금속활자를 주로 사용하고 목판자가 혼용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밀람 주조법(密蘭鑄法)-‘직지’는 주조법-주조법은 주조는 주조법과 밀람 주조법이 있었는데 당시 사찰에서 각종 도구를 만드는 데 종종 사용되어 왔는데, ‘직지’ 본문은 글자 모양과 크기가 다른 점 때문에 활자의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후 1911년 3월에 한국·중국·일본의 골동품과 옛 서책을 여행에 붙였는데, ‘직지’는 골동품 수집가였던 Henry Vever(1854~1943)가 180 프랑스 프랑에 구입하였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유언에 따라 1952년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기증되었으며, 현재까지 도서관으로 109호, 기증번호 9832 번으로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문헌실에 보관되어 있고 있다.

한편 ‘직지’가 한국에 알려지고 연구가 진행된 것은 1972년 ‘제1회 도서의 해’와 1973년 ‘제29회 동양학 학술대회’의 두 번의 전시회를 통해서이다.

▶박문선 박사(사범대 사학과 50)가 ‘직지’ 하권의 마지막 장에 있는 개의 강행 기록에서는 이 책이 철주 흥덕사에서 신광(宣光) 7년 즉 고려 우왕 3년(의 1377)에 금속 활자로 인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 후 강주진·천해봉·손보기 등 20여 명의 학자들이 ‘직지’를 고증한 결과, 금속활자를 주로 사용하고 목판자가 혼용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밀람 주조법(密蘭鑄法)-‘직지’는 주조법-주조법은 주조는 주조법과 밀람 주조법이 있었는데 당시 사찰에서 각종 도구를 만드는 데 종종 사용되어 왔는데, ‘직지’ 본문은 글자 모양과 크기가 다른 점 때문에 활자의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후 1911년 3월에 한국·중국·일본의 골동품과 옛 서책을 여행에 붙였는데, ‘직지’는 골동품 수집가였던 Henry Vever(1854~1943)가 180 프랑스 프랑에 구입하였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유언에 따라 1952년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기증되었으며, 현재까지 도서관으로 109호, 기증번호 9832 번으로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문헌실에 보관되어 있고 있다.

한편 ‘직지’가 한국에 알려지고 연구가 진행된 것은 1972년 ‘제1회 도서의 해’와 1973년 ‘제29회 동양학 학술대회’의 두 번의 전시회를 통해서이다.

▶박문선 박사(사범대 사학과 50)가 ‘직지’ 하권의 마지막 장에 있는 개의 강행 기록에서는 이 책이 철주 흥덕사에서 신광(宣光) 7년 즉 고려 우왕 3년(의 1377)에 금속 활자로 인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 후 강주진·천해봉·손보기 등 20여 명의 학자들이 ‘직지’를 고증한 결과, 금속활자를 주로 사용하고 목판자가 혼용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밀람 주조법(密蘭鑄法)-‘직지’는 주조법-주조법은 주조는 주조법과 밀람 주조법이 있었는데 당시 사찰에서 각종 도구를 만드는 데 종종 사용되어 왔는데, ‘직지’ 본문은 글자 모양과 크기가 다른 점 때문에 활자의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후 1911년 3월에 한국·중국·일본의 골동품과 옛 서책을 여행에 붙였는데, ‘직지’는 골동품 수집가였던 Henry Vever(1854~1943)가 180 프랑스 프랑에 구입하였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유언에 따라 1952년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기증되었으며, 현재까지 도서관으로 109호, 기증번호 9832 번으로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문헌실에 보관되어 있고 있다.

한편 ‘직지’가 한국에 알려지고 연구가 진행된 것은 1972년 ‘제1회 도서의 해’와 1973년 ‘제29회 동양학 학술대회’의 두 번의 전시회를 통해서이다.

▶박문선 박사(사범대 사학과 50)가 ‘직지’ 하권의 마지막 장에 있는 개의 강행 기록에서는 이 책이 철주 흥덕사에서 신광(宣光) 7년 즉 고려 우왕 3년(의 1377)에 금속 활자로 인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 후 강주진·천해봉·손보기 등 20여 명의 학자들이 ‘직지’를 고증한 결과, 금속활자를 주로 사용하고 목판자가 혼용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밀람 주조법(密蘭鑄法)-‘직지’는 주조법-주조법은 주조는 주조법과 밀람 주조법이 있었는데 당시 사찰에서 각종 도구를 만드는 데 종종 사용되어 왔는데, ‘직지’ 본문은 글자 모양과 크기가 다른 점 때문에 활자의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후 1911년 3월에 한국·중국·일본의 골동품과 옛 서책을 여행에 붙였는데, ‘직지’는 골동품 수집가였던 Henry Vever(1854~1943)가 180 프랑스 프랑에 구입하였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유언에 따라 1952년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기증되었으며, 현재까지 도서관으로 109호, 기증번호 9832 번으로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문헌실에 보관되어 있고 있다.

한편 ‘직지’가 한국에 알려지고 연구가 진행된 것은 1972년 ‘제1회 도서의 해’와 1973년 ‘제29회 동양학 학술대회’의 두 번의 전시회를 통해서이다.

✂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후원금 (회계연도 2012년 7월 ~ 2013년 6월) ✂					
성명*한글 영문		단과대학 및 대학원:		입학연도:	
집주소:		전주소			
전화 이름:		업소 주소			
전화: (B)		(H)	(C)	(Fax)	e-Mail:
연2000 ☐ 2011~2012년 \$75 ☐ 연500 ☐ 2012~2013년 \$75 ☐ 연\$1,000 ☐ ☐ 연2000 ☐ 2012~2013년 \$120 ☐ 디자인 명함1/2 \$200 ☐ 가사 ☐ 디자인명함크기\$500 ☐		임판광고비 명함크기(3.5" x 2") \$100 ☐ 1/6면 (5" x 4.5") \$200 ☐ 1/3면 (10" x 4.5") \$500 ☐ 1/2면 (10" x 6.7") \$800 ☐ 전면 (10" x 13.5") \$1000 ☐		특별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 ☐ 기부 분담금 \$ ☐ 종신 이사회 \$ 3,000 ☐	
보내실 곳 : 1225W, 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Fax: 310-515-7883 e-Mail: snuausa@yahoo.com					
지불방법(Check 또는 Card) Pay to order of 'SNUAUSA' Visa() Master() American Express() 기타() 전화 <310-515-7888>로() Check No.()					
Card No.:		Security Code:		Expire Date:	
Cardholder's Name:		Date:			
Address No. Only		Zip		Pay to order of SNUAUSA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818) 225-8411로

CA 남가주

건축/건설업

Mackone Development Inc.
양대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HNK Tech, INC(한진건축 사무소)
한효동(공동 58)
(213)422-9299
7518 1/2. Foothill Bl LA. CA. 91042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공동 74)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공인회계사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9315
19401 Vermont Ave., Suite C-201
Torrance, CA 90502
kangdong@att.net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공동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Gardena CA 90248

Kim & Kang CPA's
(김경우 김광복 공인회계사)
김경우 (공동 69)
(213) 616-138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50,
Gardena CA 90248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 530-3630
12912 B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 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장준 공인회계사
장준(인문대 85)
Tel:(818) 772-2811
9020 Redondo Blvd., #104
Northridge CA 91324

Jung Mo Park & Co
박정모(문리대 66)
213-383-1390
3255 Wilshire Bl. #1700 LA, CA 90010

STANLEY Cha, CPA
차기민(공동 85)
213-739-5700, 714-525-1821
schap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632

ANK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사대 73)
213-390-3501
386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리테일러/보석/무역

한남재인 (리테일러/상패)
하기원(공동 66)
(213) 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세계보석
김광철(공동 59)
(213) 627-0547
650 S. Hill St., #E8
Los Angeles, CA 90014

Green Zone International, Inc. 농산물
김한영(사대 65)
(714)731-2776 (714) 724-2580
2800 Keller Dr., #11 Tustin, CA 92782
greentzone@yahoo.com

ALG USA
하상원(공동학번 90) 310-323-3331(C)
213-700-1500(C), 310-323-3338(Fax)
www.ALGUSA.NET. thomas@algusa.net

변호사/법률사무소

김동산(법대 59)
무안법률고문그룹
Prepaid Attorney Service Corp
1.800.800.0246
3435 Wilshire Blvd. Suite 2000 L.A. CA 90010
www.pasc.com

신해원 변호사
신해원 (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300
Los Angeles, CA 90010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경희(인문대 83)
(213) 385-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우주개발/기술

JAY H. CHUNG, Ph.D.
SPECIALIST IN SPACE & AEROSPACE
TAYCO SPACE/DEFENSE, INC.
Spacecraft - Aircraft & Missile Advanced Systems Manufacturer
정재훈(공동 64)
2425 Regency Blvd., P.O. Box 9034
Covina, California 91703, USA
Tel: (916) 960-0280 Fax: 1-714-960-0282
http://www.taycoinc.com

LinkTV Media.
김원탁(공동 65)
818-768-5494
P.O.Box 1388 Sun Valley, CA 91352

교육/강당

Hiza Yoo Korean Dance Institute
유희자 국악 무용 연구소
818-456-8322
19531 Gresham St., #204 Northridge CA 91324

서비스/자동차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Vermont Automobile
권기성(공동학번 72)
(323) 757-1316
85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4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공동 76)
(412) 367-4731
4132 Buford Hwy Doraville GA 30096

엔지니어링/ 법인/ 부동산/ 교회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
Polar Engineers 정진우(공동 56)
650-254-1871
495 N. Whisman Rd. Ste. 300 Mt. View
CA 94043

한미 교육 연구원
한미교육연구원
장준환
장준환, Ph.D.
4975 Sunset Blvd. Suite 100
Van Nuys, CA 91411
Tel: (213) 384-4276
Fax: (213) 384-4272
hmc@hanmiedu.com

Cake House
홍성국 323-766-0004
3250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Team Spirit 부동산
(Investment & Development)
Jannie Chong Lee 이종모(간호 69)
714-396-0624
30 Corporate Park #207 Irvine CA 92606

LA CANADA KOREAN CHURCH
고원익(?) 818-790-7320
5058 Angeles Crest Hwy
LA. CANADA, CA 91011

대형/ 보험

Hansol
Financial & Insurance Marketing Inc.
정지선(상대 58)
2910 Telegraph Ave., #200, Oakland CA 94609

수의학/ 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수의대 66)
909-627-95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원(수의대 67)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Roswin Pet Hospital
김영(수의대 63)
(818) 718-2112
20021 Roscoe Blvd Canoga Park CA 91306

연계이머링 컨설팅

Lee & Ro, Inc.
노영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운송/유통/통관/연계

SeAH Steel America, Inc.
유희/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692-0609
95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은행/지점

Hanin Federal Credit Union
이영일(문리 53)
213-389-9000
3700 Wilshire Blvd. #1700 LA. CA 90010

SK Window

류 원(대학원 74)
213-700-4119
901 E. 31 St., LA. CA 90011
ryuwoon2000@sun.net www.srwindow.net

의료/약국

Gilbert Pharmacy I
* 최무식 (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의료/치과

California Family Dental Center
* 이영철(치대 65)
(323) 266-1500
4080 E.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3

Daniel D. Chung DDS, Inc.

정대연(치대 74)
(714) 995-5000
8884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Seonho Ha Prosthodontics

허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 510 LA. CA 90010
dshahp@yahoo.com

의료/내과/전문의

권영재 소아과
* 권영재(의대 57)
(562) 435-4777
1040 Elm Ave. #200 Long Beach CA 90813

김일영 심장내과

* 김일영(의대 65)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 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643

South Bay Cancer Center

나정자(간호 70)
310-978-4670 310-543-5327
14608 Hawthorne Bl. LA. CA 90260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800 (0) 714-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rdino CA 92404

케이람

LA Supply
전승택(사대 60)
(562)-404-1552
13700 Rosecrans Ave. San Jose CA 90070



컴퓨터/컨설팅

Computer Pro

황재우 (공대 83)
(310) 626-6391
22590 Crenshaw Blvd. #R,
Torrance, CA 90505

교회

라 카나다 한인교회

특고 현(공대 65)
816-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식목/음식점

강남척관

Kang Nam Restaurant
323-937-1070
4103 W. Olympic Blvd. LA. CA 90006

마포 주물목 Mapo Korean BBQ

Restaurant (310) 679-3622
14039 S. Greenway Blvd. #102 Gardens
CA. 90248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213-389-3042
950 S. Vermont Ave. LA. CA 90006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호(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복 가주

상점/컨설팅

두리하나 결혼정보

9년 전 설립해 현재 다수 회원 확보. 높은 성공률과 양인 추천, 재혼자 라이프 스타일, 부동산 등 관련 전문지식, 특별할인
정지선(상대 58) (510) 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 200 Oakland
CA 94609 www.2skes1.com

수익사/동물병원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성봉(수의대 67)
(3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의료/전문/치과/안과

박희래 한의원

임희래(간호대 73)
(831) 818-2959
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비행리프트 해양 극지 에너지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
Polar Engineers
정진수(공대 56)
(650) 254-1871, 495 N. Whisman
Rd. Ste. 300 Mt. View CA 94043

MD, VA 워싱턴DC

Fairney Asset Corporation
남복현(경영대 84)
301-279-6969
414 Hu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공인회계사

Lee Kyu Sup, CPA
이규섭(상대 68)
(703) 642-2900
4330 Evergreen Ln. Suite H Annandale, VA 22095

개인관리

IPM Family Wealth Management
이태원(법대 60)
(410) 777-8081 ex158
345 N. Charles St. Baltimore MD 21201
taltee@ipmll.com

Fairney Asset Corporation

남복현(상대 84)
301-279-6969
414 Hu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변호사/법률사무소

Moon-Park & Associates

박성근(법대 75)
(703) 941-7395
7517 Little River Trpk #330
Annandale VA 22003

부동산/장계업

BPS Appraisal Company

박병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병원/치과

이준영 치과(치대 74)
(301) 220-2828 (301) 3628-9892
6201 Greenbelt Rd Ste 10, College Park MD 20740
86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GA 조지아

리태일/리태남

Auto Plaza Group, Inc.

이왕진(공대 76)
678-473-4731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FOB Synthesis Inc.

최우백(치대 76)
(404) 601-1412
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IL-IN 시카고

의료/내과/전문의/치과

Suh Sang Hun, MDPC
서상헌(의대 65)
(773) 522-2010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 이준우 치과

이준우(치대 54) (847) 390-7474
9101 Greenwood Ave. Suite #301
Niles, IL 60714

TX 텍사스

산업/건축

C&C Industries, Inc.
진기주(상대 60)
(713) 443-4593
10350 Clay Rd., #250 Houston TX 77041

MA 뉴잉글랜드

병원/수의사/동물병원

Twin City Animal Hospital
윤상래(수의 62)
(978) 343-3049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NJ-NY 뉴욕/뉴저지

건강

!! 암, 에이즈 !!
한인수(사대 73)영생건강
718-762-0812
세계 최초 Plant stem cell(조혈) 분리해당 성공.
2010년 11월 Nature지 논문 발표.

공인회계사

Wesley Y. Chung CPA
정일희(상대 55)
6385 Whitestone Place
Duluth GA 30097

메드웨이 강, CPA.

• 강홍우(사대 60)
(1212)594-9034
5 Renaissance Square Suite 31E White Plains,
NY 10601
edwardcmkang@yahoo.com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학대 64)
(212) 760-1768 (917)647-0606
38 W 32nd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enneth K. Lee CPA

이경원(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Sung N. Pak, CPA

박성남(사대 76)
212-760-2338
481 8th Ave. #1549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l New York NY 10001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변호사

연봉원 변호사

• 연봉원(문리 61)
(212) 779-1828
1261 Broadway #201 New York NY 10001

Tai Cho, Attorney at Law

• 조대영(공대 61)
(212) 779-7770 (914)782-0432
445 5th Ave., 5th Fl New York NY 10016
tai@taicho.com

부동산/장계업

Evergreen Realty

• 이자원(법대 60)
(201)944-5353
242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코스모 부동산

이재혁(법대 60) 201-944-4949(C)
201-784-3367(C)
25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Nothern Realty

김은희(상대 71)
(718)225-4500, (917)686-3360
45-22 Little Neck PKWY #5 Little Neck
NY 11362, eunicekim RE@gmail.com

운동 / 유류 / 통관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희(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의료 / 내과 / 전문의

이재진 심장내과

이재진(의대 59)
718-426-6464
37-24 75th St. Jackson Heights, NY 11372

Young S. Hahn, M.D.

한양수 안과(의대 61)
(718) 478-3344
40-23 74th St. Elmhurst NY 11373

발문재 내과

발문재(의대 63)
(718) 768-1264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사회사업 / 법인

Women In Need Center

유지계의 장 여사 임시센터
강동경(음대 82)
P.O. Box 540399 Flushing NY 11354

NV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훈(치대 86)
702-394-2828 702-480-7115
52055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www.bestcardental1lv.com

OR 오레곤

Flonox Inc.

박희진(농대 78)
602-418-5383
P.O. 7416 Beaverton OR 97007

• 열람 할인교회

최근복(법대 63)
503-291-1625
6161 SE Stark St. Portland OR 97215

PA 필라델피아

동물병원/사당

GREGORY K. JOO, DVM
MICHELLE CAMPBELL, VMD
JOHN CAMPBELL, VMD
COMPA Animal Hospital
1212 Commonwealth
Philadelphia, PA 19111
주거복(수의대 68)
telephone: (215) 442-4026
fax: (215) 442-3368
email: cuthman@compaanimalhospital@gmail.com

이조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215) 412-4228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건축 설계

Timothy Haas & Assoc.

손재욱(설계과대 77)
49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 100 Blue Bell PA 19022

TX 텍사스

산업

C & C Industries, Inc.

권기후(상대 60)
713-443-4593
10350 Clay Rd. #250 Houston TX 77094

WA 워싱턴 DC

제약/약방

Key Compounding Pharmacy

박희주(약대 83)
206-678-3900
530 S. 336th St. Federal Way WA 98003
hsaj@keycompounding.com

“웃으며
삼시다”

명칭이 없거나 머저리 조다

부부가 외출을 했는데, 앞서 가던 남편이 무단 횡단을 했다.
깜짝 놀란 트럭 운전사가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 바보 멍청이, 영잔이 머저리, 조다야! 길 좀 똑바로 보고 건너!”
이 말을 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 아는 사람이예요?”
“아아니.”
“그런데 당신에 대해 어썬 그렇게 잘 알아요?”

침대에서 잘 하기가 해도

부부가 생활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 남편이 소리쳤다.
“당신이 요리를 배우고 직접 집안 청소를 한다면, 가정부를 해고할 수 있을 아!”
남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내가 소리를 질렀다.
“아, 그러지? 당신이 침대에서 잘하기만 해도 운전사와 경찰사를 해고할 수

있다고...”

작은 물건에 팬티

가슴이 아주 작은 아내가 브래지어를 하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한 마디 했다.

“가슴도 작은데 뭐 브래지어까지 할 필요 있어?”

그러자 아내가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언제 당신 작은 물건에 팬티까지 입는다고 뭐라고 했다가?”

귀신같이 나타나는 아내

대형 할인점에서 한 남자가 멋진 여성에게 접근했다.

“저, 잠깐만 저랑 말 좀 나눠 주시겠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여기 같이 온 아내를 잃어버렸는데, 제가 매력적인 여성과도 말을 나누려고 하련데, 잃어버린 아내가 귀신같이 나타나거든요.” ***



원고 청탁

동문들의 지난 한 과정을 그리
는 연재에 'My Journey to Amer-
ica' 시리즈에서 김태환(문리대
60) 동문에 이어 권준희(사통영
양학과 87) 교수와 '파란하진
않은 삶의 열매'가 4월호 글을
썼고 지난 해 10월호부터는 계속
되지 못했다.
이는 동문들께서 여기에 마땅
한 글을 아직 보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동문들께서는
이 시리즈에 글을 써서 앞으로
자신의 자서전으로도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동문들이 이용할 수도
있으니 이를 많이 이용해주기를
바란다.*** <편집주간>

‘편집후기’

○~ 김인수(사대 55)
동문께서 해달려주시기
를 LA 4.29쪽 동 21주연
을 맞아 김인수 동문의
한국인 이민사와 차별
없는 삶이 담겨 기쁘
특집으로 실었다. 그런
데 사실 김인수 동문이
이 글을 보내준 것은 지
난 해 5월경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늦게 게재하게 된 것은
이 글이 4월호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
이다. 좀더 나은 동창회보

를 위해 편집을 하다 보
면 이처럼 배탈 시켜주
게 부합하는 글이 필요
한데 그때와 그런 글은
없어 김인수 동문에게
하야간 김인수 동문에게
는 정말로 송구스러운
일이나 자비롭고 넓은
마음, 부디 해방을 부하
드리네 바다.
○~ 김지영 동문에게
김인수 동문은 4월호를
편집하던 4월 중순 경
김지영 컴퓨터 프로그램
들이 다들었다. '트라이
바'를 비롯한 몇 개
의 악성 코드들이 침입
한 작동할 것이 가장
원인인 듯 했다. 그 중

에서도 Photoshop 7.0은
치명적이었다. 한시라도
빨리 마감을 해야 할 임
박이었다. 우선 김인수
에 컴퓨터를 확인해주고
가 가지고 가서 김지영
IT지원장으로부터 Photo
shop 2.0 을 다운받았
다. 그런데 이빨사, 이
프로그래머 버전은 오래
전 것이야 질의를 ON
트 바꾸는 기능이 없
었지 않았다. 동창회보
는 가뜰스나 적자 운
영 탓에, 되도록 수리비
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볼 수밖에, 수조
원에 동창회 사무실에서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서 'Computer Pro' Shop
(전화 310-626-6391)을
운영 중인 윤재우(과대
83) 동문을 찾아냈다.
윤 동문에게 가서 알아
보니 Windows가 망가졌다
는 진단이 나왔다. 윤
동문은 그 바쁜 하루하
로 컴퓨터 Windows를 무
효로 다 설치해두었다
다. 그래서 이바에는
Photo shop 7.0 역시 보
다 중요한 기능이 작동
되지 않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컴퓨터를 가지고
윤 동문 Shop을 방문하
는 것이 무리 다짐 차레
를 했다. 한 가지를 수리하
고 나면 또 다른 곳에서

이상이 나타나곤 했던
맛이다. 윤 동문 Shop에
서 모든 기능들을 다 정
리해볼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없었기에 사무실
에 가져와 동창회보를
편집할 때마다 또 다른
이상징후가 나타나곤 했
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때부터 윤 동문은 두
달이 고치려고, 또 한
사코 수리비를 사용했
다. 그래서 결국은 배
한 상자로만 보냈다고
말했는데 이번엔 윤재우
동문에게 정말 큰 신세
를 졌다. 고맙기 그지없
는 일이다.*** <편집주간>

각 지부 회장단

남가주	회장 김상천(문리 66) 714-396-0493 skcm@rockwellcollins.com 차기회장
북가주	회장 이장우(문리 72) 408-891-0200 president@snuac-nc.org 차기회장 박희태(한호 73) 831-818-2959 acuhere@hotmail.com
뉴욕	회장 김창수(약대 64) 212-760-1788 changsokkimcpe@hotmail.com 차기회장 박성일(공대 69) 917-327-2989 sangparkny@gmail.com
뉴잉글랜드	회장 정선주(간호 68) 781-674-2498 youngpark6@yahoo.com 차기회장 장수진(음대 76) 978-264-2988 sooinhee@comcast.com
달라스	회장 최 연(공대 70) 차기회장 오기영(공대 73)
텍사스 마운틴스	회장 표한솔(치대 58) 303-822-9370 303-755-1168 drpyo@aol.com 차기회장
미네소타	회장 변우진(인문대 81) 952-926-0040 woodlaw@yahoo.com 차기회장
샌디에고	회장 심상철(공대 81) 858-436-5498 sdunison@gmail.com 차기회장 최홍술(자연 87) 858-259-5273 heungsoo.choi@knobbe.com
시카고	회장 한의일(공대 62) 312-213-8557 eyuil1hahn@gmail.com 차기회장 김호철(발대 69) 847-657-8919 hkim@mcoogong.com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문리대) yho8@ratheon.com 차기회장
알래스카	회장 유재준(농대 55) 907-222-0887 jaejuon@hotmail.com 차기회장 배석현(농대 58) 907-561-0818
오레곤	회장 이석진(공대 89) 503-317-5625 seokjin@gmail.com 차기회장
오하이오	회장 송원길(의대 58) 614-378-2918 wnsong3140@aol.com 차기회장
워싱턴DC	회장 함은선(음대 77) 703-969-3006 samilaur12010@gmail.com 차기회장
워싱턴주	회장 김무용(음대 64) 253-228-4396 czno2@ymail.com 차기회장
유타	회장 배유현(공대 73) 801-474-1945 you.bae@yahoo.com 차기회장
조지아	회장 박 민(음대 80) 770-449-0000 minpakhg@yahoo.com 차기회장 김경호(공대 74) 770-814-0618 hkim@nobank.com
중부 텍사스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60-4680 hschris@gmail.com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회장 민홍식(수학대 60) 267-577-0502 hungmin43@gmail.com 수석부회장 김정현(공대 68) 484-744-6785 dhk064@gmail.com
플로리다	회장 박창익(농대 64) 954-599-3452 changikpark@aol.com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회장 정신희(자연대 78) 919-928-9686 sinho.jung@duke.edu 차기회장 이상구(자연대 78) 919-610-2830 sleet09nc.rr.com
하와이	회장 김용수(수학 75) 808-394-2369 ykim@hawaii.edu 차기회장
하들랜드	회장 구명순(간호대 66) 913-268-0228 chungmn@yahoo.com 부회장 이상진(상대 71) 604-688-4039 samilchi@midway.net
휴스턴	회장 이호선(공대 72) 281-877-6584 hlee@eagle.org 차기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김홍자(음대 62) 778-355-6659 honjakim@shaw.ca 부회장 조석기(상대 71) 604-688-4039 samilchi@midway.net
캐나다 앨버타	회장 조윤희(자연 82) 403-820-8261 delhouised@hotmail.com 부회장

미주동창회 조직과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1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강수성(의)·이병준(상)·오민석(법)·이용각(공)·오홍조(치)·이정현(공)·이진구(농)

영예회장: 송수영(문)

제11대 회장: 김은중(상)

각 지부 회장: 오인환(문)

관외유원회 부회장: 노영호(공)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성주영(상)
총무국장: 박복자(문)
재무국장: 강석현(상)
사업국장: 이종희(문)
연구국장: 이상대(농)
감 사: 김재원(농)·박명일(농)
기금모금위원장: 이종도(공대)
IT개발위원장: 김영연(공대)

회보 임원

발 행 인: 김은중(상)
상고문: 박석현(농)·김건진(문)
편집위원장: 지민수(상)
편집주간: 이기훈
편집위원: 조홍준(의)·박양준(문)·김재원(농)·나철상(문)·이종도(공)·김지영(사)·김성수(문)·이연영(문)·김홍희(인문)

논설위원

김일환(치)·김기태(사)·조종준(사)·최홍환(사)·박순(WA, 치)·윌리엄(치)·이형광(사)·정홍택(사)·윤상래(치)·김창수(NY)·임승준(사)·정석경(치)·이석구(NY)·정요진(사)

회칙위원회

위원장: 서준민(공·PA)
원 인: 한재원(의)·IL·이민영(법·TX)·윤상래(수·NE)·김지영(사·LA)·선용봉(농·NY)·함은선(문·WA)

·사진·취재·기사작성·편집·디자인은 이기훈 편집주간 snuasaik@gmail.com
·인쇄: China Times Printing, INC.
445 Nedra St., San Gabriel, CA. 91776
Tel 626-308-2037

<15면에서 계속>

암벽 등반도 하신다고요.

"저희 두 사람은 등반 외에도 암벽등반을 즐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 3번은 실내 혹은 실외 암장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암벽 등반 기술이 늘지는 않지만, 손부터 발끝까지의 정신 집중으로써, 포괄은 본능과 아울러 눈을 잊어 버리고 착각하며 자책기는 연습 맞출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은 무엇이지?

"황상 유부로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살며 오르며 자인과 함께 하려고 애쓰다 보니, 인간사에 약간 무디어졌다고 할까요? 서로 작은 일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사랑하고 이해하니,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니 참입니다. 자녀는 딸, 아들, 딸이 있는데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감외까지 하시는 한시에 대해

서 한 말을 해주신다면

"제가 한시를 공부한다고 하기도는 동양 고전에 정신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겠지요. 등산을 하면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친구분들이 '이 친구 시를 좀 아나 보다'라고 해서 일소문이 좀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정신문화는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우리들의 성의라고 생각해서 한국 문학을 어찌 넘어서 보지 못나, 자연적으로 한문에도 관심이 생기고, 또한 동양의 문화에 너무나 무지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제 나름대로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이것저것 뒤지는 것이 오히려 되다 보니 서양계 2년은 온 것 같습니다. 배울 게 너무 많아 미국 연구소를 처음 보고 놀라던 것 이상입니다. 갈수록 태산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언제 다 배울지? 하루세일이 후회스럽습니다. 조금 더있으려는 어릴 때 산에서 내려다 본, 초라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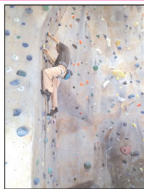
-산악회원들이 INCA Trail Tracking을 끝내고 Machu Picchu에서.

를 빠진 무덤의 묘비에 '學生 翁 友子之墓'라고 적혀 있던 것이 자못 떠오릅니다. 저도 평생 학생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매매들에게 주실 말씀이나 신념이 있으시다면?

"우리 후배님들은 다 잘 하고 계시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는가? 다만 저의 삶을 되돌아 보면, 모든 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또 매일 아침 창을 새롭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성적으로 무장되어 철저된 감성을 가지며, 뒤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배운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행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겠지요. 저는 자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물이고, 둘은 하나보다 크다'의 의미를 되새기곤 합니다."

-<15면 등론 포럼>
▶1960 공대 전기공학과 입학
▶1962 한국 유전화학 ▶1966 졸업 후 동양화학(주)인사 ▶1968 Univ. of Dayton MSCE ▶1968-71 Ohio State Univ. Research Ad-



↑실내 암벽등반 훈련장에서 훈련 중입니다.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미주 동창회 ‘제22차 평의원 회의’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4대 남가주 동창회장 이기준(법대 54)

미주 동창회 제22차 평의원 회의 일정(2013년 6월 21일~23일)

일자	시간	내용	장소	비고
6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호텔 접수	The Westin Tysons Corner, 7801 Leesburg Pike, Falls Church, VA 22045 Tel: 703-893-1340 Fax: 703-442-7386	각자 예약, 2인1실(\$104) Suite (\$159) (모두 아침 식사 포함)
	오후 4시 출발 5시 관광	백남준 미술관	Smithsonian American Art Museum Washington, DC 20013-7012	Bus로 단체 이동: 평의원, 비평의원과 가족 회비 무료
	오후 7시~9시	전야제	장소 미정 - The Westin Tysons Corner (혹은 한국음식점)	평의원무료 비평의원과 가족회비 - 미정
6월 22일 (토요일)	오전 8:30~오후 4시	평의원 회의	The Westin Tysons Corner (8:30 am - 4:00 pm)	Lunch thru the meeting
	오전 8:30~오후 5시	가족 시내관광	Out of Town 등산 가족들 DC관광 (9:00 am - 4:30 pm)	각자 혹은 단체, 1인: \$70 정도 (tip + lunch 별도)
	오후 6시~10시	만찬	The Westin Tysons Corner, 통상 Agenda 외에 만기론 UN 사무총장 Video Message: Thomas Hubbard (Korea Society 회장, 전 주한미대사) Keynote Speech <대한음식회> 10:30 - 11:00 pm - 지역회장간 모임 (오인환자기회장)	장장, 평의원, 서울 총동창회 및 서울대 참가자 무료 비평의원과 가족회비 - 미정

• 6월 23일(일요일)= Hotel Check-out 및 친선 Golf대회(11:00 am - 9:30 pm - 오인환 차기동창회장

A Tasty Gift From The Sea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대표 이승훈(상대 74)

www.jayone.com | 952-932-7400 | 952-932-7404 | facebook.com/jayonefoods | twitter.com/jayonefoods | youtube.com/user/jayonefoods

“미주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합니다!”

CPA

에드워드 강(강충무 사대 60)
(212) 594-9034



5 Renaissance Square Suite 31E White Plains, NY 10601
(212) 594-9034
edwardcmkang@yahoo.com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김재정(82入, 문리대) www.duo.co.kr



좋은사랑 만나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 듀오

- 소비자가 인정하는 프라이빗 브랜드 : 규모와 인명, 서비스까지 고객이 인정하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배재형 커플매너 : 전문적이고 인품 있는 커플매너가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드립니다.
- 유로한미 매칭 프로그램 : 과학적인 매칭 프로그램으로 이상형을 찾아드립니다.
- 한국 회원공개 : 한국 회원과의 만남을 현실 공유, 2년 6개월이 넘는 최장 중 가장 잘 맞는 상대를 찾아드립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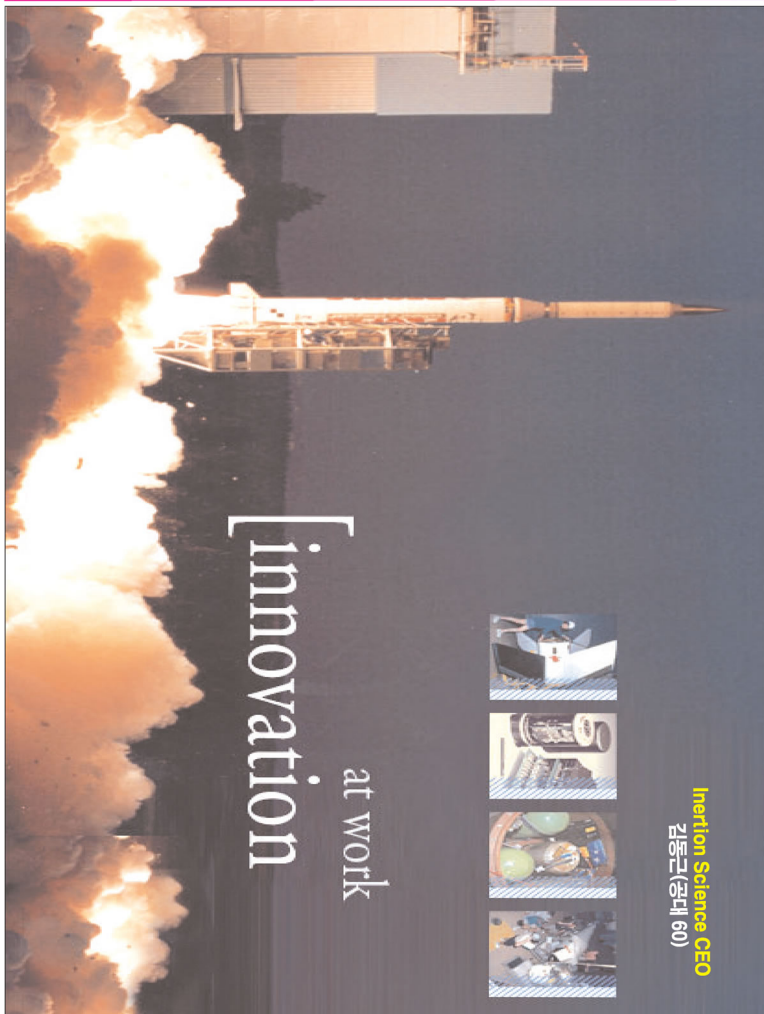
문의 LA 213-383-0077 / NY 201-242-0505

ONE DENTAL SPECIALTIES

정직한 마음으로 당신의 **치아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살펴보는 전문가의 손길이 있습니다.
- 김태형 동문 97卒 -

Address: 621 S Western Ave #201,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1-2828



Inertion Science CEO
김동근(공대 60)

[innovation
at work

